

정보운동 액트온 | ActOn

# 위키리크스, SNS, 대안 인터넷

통권 제12호 | 2011년 제1호



진보넷 활동가들이 통영, 거제로 Mt를 다녀왔어요. 통영 동피랑 마을의 벽화.

## 인터넷 민중주의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통제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비판하던 미국이 위키리크스에 한방 먹고는 위선적 본질을 드러냅니다. 위키리크스의 도메인은 차단되고, 후원 계좌는 동결되었으며, 미국의 정치인들은 줄리언 어산지를 '간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3세계의 인민들에게는 일견 통쾌할만한 일이긴 하지만, 위키리크스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의) 국가 권력의 불투명성과 비민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무기라고 찬양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개인정보들처럼, 아무런 통제없는 정보의 '유출(leaks)'이 마냥 민중들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정보 환경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편, 아랍 민주화/혁명 운동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운동의 주요 동력은 도구가 아니라 '민중'이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SNS의 역할을 과장하거나, 오히려 기업들의 SNS 서비스들이 반혁명 세력에 의해 악용당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터넷이 그 자체로 대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나 자본이 허락한 방식에서의 인터넷 '소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미디어 정책에 개입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민중들이 스스로의 능동성을 발휘한만큼 그것은 민중들의 무기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병일 @antiropy

계간 정보운동 액트온 ActOn

통권 제12호 | 2011년 제1호

발행일 2011년 3월 15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희

편집인 오병일

편집 오병일

표지 박명훈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antiropy@jinbo.net](mailto:antiropy@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본 정보운동 ActOn에 실리는 모든 내용은 '정보공유라이선스 2.0:영리금지'를 따릅니다.  
[www.freeuse.or.kr/license/2.0/yg](http://www.freeuse.or.kr/license/2.0/yg)

차례

통권 12호 | 2011년 제1호

## “위키리크스, SNS, 대안 인터넷”

Section 001. 위키리크스, SNS, 대안 인터넷	… 07
위키리크스, 미디어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 김낙호	… 08
아랍 혁명에서 인터넷 전쟁 / 조동원	… 16
아랍 민주화 운동과 대안 미디어의 역할 / 백육인	… 25
Section 010. 이슈	… 32
"우리 약에 손대지마!"…인도-유럽FTA가 가져올 위험 / 권미란	… 33
법원도, 유엔도, 국가인권위도 “방심위, 인터넷 심의 안돼!” / 장여경	… 39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정민경	… 42
허위사실과 인터넷 / 장여경	… 45
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 오병일	… 49
댓글 알바, 혹은 기름땀 짜는 디지털노동 / 조동원	… 54

Section 011. 문화는 공유를 타고	... 59
Section 100. 이달의 부킹	... 66
Section 10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72
Section 110. 회원 인터뷰	... 79
Section 111. 센터 속사정	... 89

## **Section 001. 위키리크스, SNS, 대안 인터넷**

위키리크스, 미디어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 김낙호  
아랍 혁명에서 인터넷 전쟁 / 조동원  
아랍 민주화 운동과 대안 미디어의 역할 / 백육인

## 위키리크스, 미디어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김낙호 (미디어 연구가)

대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에 대한 내부자 고발이든 연예인에 대한 평판 정리가 인터넷에 뿌려지는 것이든, 정보 유출이라는 것에는 묘한 매력이 있다. 특정 집단만이 보유하는 비밀이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것인데, 제도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빈틈을 통해서여야 한다. 그렇기에 보다 강고한 지배적 집단에 관한 비밀일수록,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괴리가 크면서도 사람들의 부정적 상상력과 맞아떨어질 때(“내 그럴 줄 알았어”) 유출된 정보는 더욱 일파만파 영향력을 발휘한다. 피상적으로 잘못 적용하면 단순히 선정적 험담의 재료가 되며 정작 중요한 이슈들을 묻어버리고, 적절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질 경우는 사회적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사건들을 바로잡는다. 작고 큰 공동체들이 늘 서로 연동되어 있고 종종 그 사이에 이해관계



가 엇갈리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집단의 비밀을 유출하는 것은 그 집단에는 피해를 입히지만 더 큰 사회의 차원에서는 큰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반면 거의 대부분의 차원에서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누구에게나 손해인 비밀도 있다. 또는 단기적 예상효과와 장기적 효과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런 복합성이 정보 유출 사건을 바라볼 때 통쾌한 감정에 머물기 보다는 여러 분야에서 어떤 이슈를 유발하는지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비밀자료 유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크스(Wikileaks)의 혁혁한 2010년 활동 덕에, 세계 정계(특히 미국 군부)는 매우 시끄러워진 바 있다. 연초에 미군의 이라크 민간인 살상 비디오 클립이 유출되어 큰 주목을 끌었고, 11월에는 미국 외교 보고서들을 대량으로 공개하여 논란에 휩싸였다. 이라크 비디오 공개 당시에도 관련 문건들을 많이 확보했음을 알리고 상당수를 함께 공개했지만, 기본적인

로 숨겨진 악행을 폭로한다는 고전적 언론 폭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듯해 보였다. 하지만 외교문건 공개의 경우는 뚜렷한 사건을 중심에 놓고 정의구현을 외치기보다는, 엄청난 양의 문건들을 무차별적으로 한꺼번에 풀어놓는다는 점 자체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공개된 문건들은 각각 엄청난 임팩트를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미국 및 미국과 접촉하는 외교담당자들의 세계정세 인식이 이렇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일부는 상대 정치지도자를 폄하에 가까울 정도로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 외교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에 대한 개개인의 소견도 담겨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시시콜콜 개입하더라는 이미 대부분의 이들이 상상할 법한 이야기를 제외하자면, 하나의 내러티브로 묶이기보다는 비밀문건 대량 유출 자체가 핵심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미국 정부와 보수 정치인들이 민감한 대응을 하며 정작 유출된 문건 내용보다 더 확실하게 이미지를 구겼다.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안 어산지

위키리크스의 외교문건 사건은, 종종 안정적인 전제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여러 정보사회의 이슈들을 한꺼번에 표면화시켜버렸다. 그 중 하나의 세트는 표현의 자유인데 언론의 권한과 자세, 특정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발언의 경우 국가 간 규제의 적용 범위, 민간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언론 통제의 문제 등이 있다. 또 하나의 세트는 데이터의 취급에 관련된 것들로 내부 고발자 보호의 조건과 정도, 데이터 비밀 분류가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득실이 되는가 등이 있다. 좀 더 정보유통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뉴스환경이 편집자 중심에서 소스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성찰, 혹은 그 반대로 여전히 기존 언론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현실, 온라인 협업의 새로운 의미와 기술조건 등이 한 세트로 제시될 수 있다. 여기에 비하면 대표인 줄리안 어산지 (Julian Assange)가 범죄자니 영웅이니 논하는 것은 지극히 지엽적일 뿐이다.

## 표현의 자유와 전방위 규제

문건 유출과 그에 대한 각계의 대응에서 가장 노골적으로 떠오른 이슈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언론의 책임인데, 유출 자료에 대해 언론이 보도할 경우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나아가 누가 언론으로 규정되는가의 문제가 얽혀있다. 원래 미국의 경우는 판례에 의하여, 정보를 유출한 이는 처벌받을 수 있어도 그것을 받아서 보도를 한 언론은 책임이 면제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어 왔다. 다만, 언론사가 정보유출을 적극적으로 장려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그렇기에 위키리크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천 개 단위로 문건을 넘겨준 언론사들은 그것을 보도해도 면책이 되는데, 실제로 그들의 입장에서는 제보를 받아 그것을 훑어보고 스토리를 찾아 기사를 만들어 내는 전통적 과정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위키리크스의 경우는 어떨까. 문건을 유출하여 위키리크스에 넘긴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정보부 사병에게 유출을 장려한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넘겨받은 데이터를 그대로 풀어놓는 것은 언론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각종 국내외 언론보도의 호들갑과 달리 실제로는 입수했다고 알려진 22만 건 가운데 자체적 또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것은 정작 2천 건 내외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역시 민감한 이름들의 익명처리를 거쳤다. 이 정도면 언론으로서의 필터링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래도 데이터를 통째로 풀어놓을 뿐이니까 언론이 아닌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 범위의 보도까지 언론의 사회적 감시 기능을 이유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워낙 대량의 데이터를 그대로 풀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미국 법조계의 판단기준인 “명백하게 현존하는 위협”을 식별하기도 힘들다. 다만 위키리크스의 어산지 대표가 몇 가지 글에서 표명한, 정보의 극단적 공개를 통한 음모론에 의한 지배의 해소 정도가 어렵פות한 목표의식으로 제시되곤 할 뿐이다. 즉 언론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하면 언론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과 제도들을 좀 더 복잡해진 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발등의 불로 떨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국가 간 규제의 적용 범위와도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이 로젠 교수의 표현을 빌려서 “최초의 탈국가 뉴스기관”이라고 부를 때, 국가적 침해를 받은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항의나 규제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렇다고 어떤 식으로든 규제할 방법이 있는가 하면, 영국에서는 은거생활 중인 호주인 어산지 대표를 미국법으로 처벌하기는 힘들고 정작 그는 스웨덴에서 성추행 혐의로 엮여 있는 상태다. 위키리크스의 ‘소재지’는 각종 백업 서버들을 통해 이미 전 세계로 퍼져있다. 그 애매함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입을 막을 수도 없고 반면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받을 수도 없다. 장점과 단점들은 서로를 상쇄하지 못하며, 각각 국제적 정보환경의 조건이 되어버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제도화한다면 어떤 식의 기구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손 봐야 할 것인가. 아니 그런 것이 바람직하기는 한가부터 따져봐야 할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좀 더 흥미로운 부분은 민간 기업에 의한 직간접적 언론 통제의 문제다. 미국 정부는 계속 유감을 표명했고 정치인들이 성토를 했지만, 직접 손을 더럽히는 길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 대신 민간 기업들이 나서서 위키리크스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길을 선택했다.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호스팅하던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중단했고, 후원금을 모금하는 인터넷 결제 서비스 페이팔 역시 계정을 정지시켰다. 나중에는 심지어 비자카드 역시 위키리크스로의 금전 거래를 끊었다. 이들 민간 기업들은 지배적사업자로 사실상 인터넷상의 인프라에 가깝다는 점을 자처하면서도, 민감하다 싶으면 언제라도 손을 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각국 정부나 국제단체가 아니라 민간 기업들 역시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다. 물론 결국 호스팅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분산하여 해결했으며 자금 역시 우회로 또는 구식 송금으로 처리하게 되었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이미 사람들의 일상적 기대수준에 크게 뒤떨어지는 모습이 되었다. 즉 민간 사업자의 제동에 의해 국제적 규모에서도 거의 인프라 차원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주요 서비스 부문에서 개별 국가 정부나 기업의 의지로 좌우할 수 없는 공공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고민거리가 드러났다.

## 공격적 정보 공개의 명암

표현의 자유 다음으로 부각되는 이슈들은 사회가 데이터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들이다. 우선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처우가 엮여있다. 내부 고발자는 조직의 부패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발자 보호 강화 법안을 추진했는데, 내부 고발을 초국가적 외부 단체가 아닌 국내에서 유치하여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지만 위키리크스 외교문건 유출은 내부 고발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구석이 있다. 이라크 양민 살해 비디오는 조직에서 은폐하고 있던 구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기에 내부 고발의 성격이 뚜렷했지만, 외교문건의 경우는 문제점을 발견해보라며 자료 자체만을 대량으로 풀어버린 경우이기 때문이다. 비밀을 폭로하는 것 자체만으로 보호받아야 할 내부 고발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 자료에서 중요한 문제 지점을 누군가가 발견해내면 그 때 비로소 내부 고발로 바뀌는 것인가.

그 다음에는 비밀의 가치판단이 있다. 우선 전제해야 할 것은, 비밀로 두어야 할 데이터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개인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기에 프라이버시로서의 개인 신상에 대한 보호는 당연하다. 하지만 공공업무에서도 잠재적 파장에 비해서 사실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이슈라든지, 알려지면 경쟁세력에게 밀리게 된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은 비밀로 분류되

는 데이터가 여전히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비밀문건이 유출된 만큼의 피해를 본 셈이기는 한데, 동시에 현재까지 드러난 문서들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것은 비밀로서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공개된 문건들이 주로 동향과 정세판단 등에 대한 정보수집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숨겨진 정보를 몰래 빼돌렸다면지 하는 비밀스러운 정보라서가 아니라 내놓고 공개하면 외교상 민감해질만한 정도의 것들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란 대통령선거에 나타난 시민혁명의 (결국 실패한) 시도를 보며 인터넷 보급과 정보공개를 미덕으로 설파한 미국이, 실제로 자국의 비밀정보가 침해되자마자 입장이 복잡해진 것 역시 아이러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내용’은 과연 비밀로 인정해줘야 하는가, 아니면 해당 집단 내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또 다른 언론 정도로만 간주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점은 가볍게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이, 일부 국가의 경우 문건에 노출된 내용이 단서가 되어 반정부 인권세력들에 대한 파악과 탄압으로 이어지거나, 비밀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고 국제적 정보교환이 위축될 위험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짐바브웨의 경우, 반독재에 참여하려는 인사를 특정화하여 추출하기 위한 재료로 독재정부 측에서 유출 문건들을 꼼꼼히 분석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렇듯 같은 방식의 정보공개라도 사회적 조건에 따라서 득이 되고 실이 될 수 있는데, 인터넷 및 위키리크스의 특성상 지역을 가려가며 공개하지 않는다. 데이터의 악용을 막기 위해 위키리크스측도 공개 전에 열심히 익명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익명화 작업의 완성도는 노동력 대비 문건 수와 복잡함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누가 어떤 식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알려진 자료도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정보투명성의 아나키스트들인 위키리크스가 정작 스스로는 불투명하기 짝이 없는 셈이다. 게다가 익명처리를 하지 않은 전체 데이터를 암호화한 압축파일을 미리 인터넷상에 배포한 후 어산지 대표가 부당하게 체포되면 암호를 공개해버리겠다는 인질극을 벌일 정도라면, 그다지 정보공개에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 그다지 진지하게 신경을 쓴다고 보기는 힘들 지경이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데이터 익명화를 통한 부대 피해를 줄이면서도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기술적 개선과 협업의 힘을 끌어들여야할 부분인데, 자연어처리로 문건 내 고유명사들을 자동 전체 블라인드처리 후, 다중의 토론에 의해 어떤 것이 그 중 공개되어도 될지, 그리고 공개되어야 할지를 결정하여 열어주는 시스템 같은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투명성은 정보를 숨기는 이들 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하는 쪽에도 요구되는 가치이며, 그 때문에 위키리크스에 반기를 든 오픈리크스 등의 다른 프로젝트들이 한층 탈중심화된 운영방식을 내걸며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혹은 알자지라의 경우처럼 언론사들이 아예 직접 내부 고발 정보 유출을 장려하는 투고 장치를 만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 뉴스환경의 변화를 인식시키다

가장 복잡한 양상이 된 것은 뉴스환경이라는 요소다. 위키리크스는 편집자 중심에서 소스 중심으로 변하는 뉴스환경 변화 흐름을 새삼 강력하게 일깨워주었다. 편집자가 취재원들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해주는 중심 역할을 맡았던 것이 전통적 뉴스 모델이었다면, 독자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직접 소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는 것이 소스 중심 모델이다. 블로그 같은 1인 미디어의 범람을 넘어, 트위터 등의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관심사와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정보망을 구성하여 실시간으로 뉴스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났다. 중간에 재가공해주는 편집자들을 건너뛰는 것은 왜곡을 줄일 수 있는 장점, 그렇다고 해서 직접 한다고 해서 더 잘 한다는 보장이 대체로 없다는 단점이 함께 한다. 그런데 위키리크스 건은 뉴스를 가진 이가 뉴스를 알려주는 것보다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뉴스가 있을 법한 자료를 잔뜩 던져주고 알아서 찾아가라는 식의 극단성을 선보였다. 자료를 먼저 입수한 언론사들은 자신들이 지닌 저널리즘 노하우로 좀 더 효과적으로 뉴스거리를 뽑아냈고, 일반 독자들 가운데 일부는 주어진 자료 가운데 자신의 사회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찾아서 나름의 이야기를 뽑아냈다. 이런 경우라면 심지어 독자들이 소스로부터 캐낸 뉴스거리를 거꾸로 언론사가 인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물론 많은 독자들에게는 결국 전통적 모델과 다를 바 없이 편집자들이 건져낸 뉴스를 접하는 식이었지만, 다른 경로가 이 정도까지 넓게 열린 것은 분명한 변화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 언론이 무력화되고 온라인 다중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식의 희망어린 과장으로 포장할만한 것이 아니다. 이슈화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디언, 뉴욕타임즈, 슈피겔 등 유수 대형언론들이 먼저 자료를 제공받은 후 먼저 뉴스거리를 효과적으로 추출했다는 사실이 있고, 그 이후의 화제 거리에서도 전통적 언론들이 적극적으로 기능했다. 위키리크스측도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처음부터 공을 넘겨준 것이었고 말이다. 반면 오히려 이름에서 풍기는 느낌과 달리, 위키리크스 자체에서는 협업의 개념이 애매한 수준에 머물렀다. 위키리크스는 원래 위키피디아가 사용하는 것과 같은 미디어위키 엔진을 기반으로 수년간 운영되어 왔으나, 2010년의 대량 데이터 공개에 들어서며 일방적인 파일 저장소처럼 모양이 바뀌었다. 불특정다수에 의한 개방적 협업으로 자료의 내용이 풍부해지거나 토론과 해설이 붙고 자료간 상호연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은폐된 소수의 고정 협력자들이 데이터를 올려놓는 지극히 단선적인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다만 사이트가 관련업체에게 도메인이름 관리 거부, 호스팅 거부 등을 당하게 되자 수많은 이들이 사이트 미러링 기술을 통해서 백업 사이트들을 운영한 점은 관리라는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분산 협업이다. 이렇듯 A가 B로 바뀌었다기보다는, A부터 Z까지 여러 경로들이 좀 더 복잡하게 서로 연결되며 공존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온전히 인식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가장 중요한 문제

적 정보들을 제대로 폭로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빠르게 유통할 것인지 골치 아픈 전략적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 한국사회의 유출서비스를 생각해보기

위키리크스 사건이 야기한 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은 대부분 국제적으로 연관된 보편적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한국 언론들의 보도들이 이 사건을 다룰 때는 가십성 해외토픽처럼 다루거나, 어산지라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유출된 자료에서 한국 외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발굴해 옮겨내는 방식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정작 논의되어야 할 지점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위의 이슈들을 우리 상황에 적합한 맥락으로 소화하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유용한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데이터를 널리 공개하는 유출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이다. 즐기세포 사기사건, 삼성 탈세, 토목개발 논리에 대한 국책연구원의 폭로까지 지난 수년간의 사례들을 생각할 때, 표현의 자유의 함의를 조율하고 데이터의 명암을 직시하며 뉴스환경을 전략적으로 다루어내는 효과적 유출서비스가 한국 상황에서도 얼마나 유용한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복잡한 논의 과제들은 앞서 제기한 내용으로 대신하고, 기술적인 부분 위주로 생각하자면 서버 접속 기록 압수를 피하기 위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의 해외 호스팅과 해외 국적의 관리인이 필요하며, 접속기록의 암호화 및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접근성의 유지를 위해 미러링 사이트도 필수다. 비밀의 유출을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고발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최선의 장치들이 필요한 셈이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면 서비스의 관리자도 제보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기술적 부분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입수한 제보를 재처리하여 공개하는 작업과정, 그리고 공개된 내용을 효과적으로 여론화시키는 뉴스환경의 구축이다. 작업과정은 뚜렷한 원칙을 바탕으로 개방성과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우선 큰 원칙은 사적 정보는 프라이버시 원칙에 따라서 더욱 강하게 보호하며, 공적 정보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록 및 공개를 하는 것이다. 마치 위키피디아의 편집원칙처럼, 다양한 참여자들과 논의를 통해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구분해내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그런 범주들을 사회적 담론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다. 이것은 공적 정보는 공개를 기본으로 하되, 언제 왜 어떤 정보를 비밀로 분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율은 계속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부터 직면

시켜야 하는 험난한 과제다.

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쪽로를 언론매체와 연동시켜 여론화를 시도하는 일종의 한국판 위키리크스는 이미 존재한다. 바로 전직 탐사기자의 개인 블로그인 시크릿오브코리아(<http://andocu.tistory.com>)가 그것으로, 비록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공개 자료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원본자료를, 특정 정치인 가문의 미국 부동산 소유 기록부터 북한 잠수함 단면도까지 대량의 다양한 자료를 원본문서 그대로 공개하는 곳이다. 그중 특히 고위 정치인과 재벌들의 미국 부동산 거래기록은 다른 국내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기사화되어 이슈가 되었다. 적극적으로 유사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그들 사이에서 자료들이 연동된다면 오히려 위키리크스보다 더 발전적인 모습의 사회적 정보 서비스로 발전할 수도 있다. 다만 위키리크스가 주는 또 다른 교훈, 즉 대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스템보다는 더 분산된 협업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상기해야 한다. 운영상의 결정구조와 자료 필터링 등이 분산되어 있으면서도 선의에 의해 조율되는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우스개인 "이론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실제 상황에서만 굴러가는" 프로젝트인 위키피디아처럼, 결국은 작동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 현실에서 뉴스원으로서의 정보유출이 발전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은 많다. 단적으로, 자료로서의 고발과 양심선언으로서의 고발 중에서 위키리크스 모델은 전자를 지향하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주로 후자가 이루어진다. 둘은 장점분야가 서로 다른데, 탈법 증명은 전자지만 부정부패의 '스토리'를 들추는 건 후자다. 그 경우 결국은 당사자 인터뷰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 개인이 노출됨은 물론이며 해당 이슈보다는 개인으로 관심이 집중될 위험이 크다. 나아가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와 온갖 서비스의 개인정보 남용 덕분에, 지나치게 '신상 털기'가 쉽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런 것을 모두 해결할 때까지 한국에서 리크스 모델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한계를 미리 인지하고 목표를 수정하거나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온라인상의 협업과 그것의 사회적 가능성에 대해 최근 수년간 가장 자주 언급되는 학자 가운데 한명인 클레이 셔키는 위키리크스 사건에 관해 양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장기적으로는 외교 위축 등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도, 단기적으로는 정보 투명성과 데이터 활용을 재촉하는 매우 유용한 자국민 만큼 당장 막으려하기보다는 더 나은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다. 외교 위축을 피상적 국익 개념 정도로 치환해서 읽는다면, 한국 현실에서 이런 유사한 정보유출 사건이 일어날 때 대체로 들어맞을 이야기다. 필요한 것은 위키리크스가 열어버린 판도라 상자의 수많은 논의거리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더 적합하게 설계된 무언가를 가꾸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 아랍 혁명에서 인터넷 전쟁

조동원 (미디어운동/문화 연구)

## 0. 인터넷 ‘셧다운,’ 혹은 국가의 인터넷 서비스 거부 공격

이집트에서 2011년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인터넷이 전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사실 이집트 정부는 인터넷이 반정부 투쟁이 조직되는 주요한 현상이 되기 시작한 2005년 이전부터 이미 인터넷을 통제해왔고, 페이스북에서 반체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감시와 검열을 지속해왔다.<sup>1</sup> 하지만 1월 25일 “분노의 날”(Jan25) 시위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혁명적 봉기로 발전되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자 감당을 못하고 인터넷의 작동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이다. 국가권력이 감행한 대대적인 인터넷 서비스 거부 공격(DOS)이라고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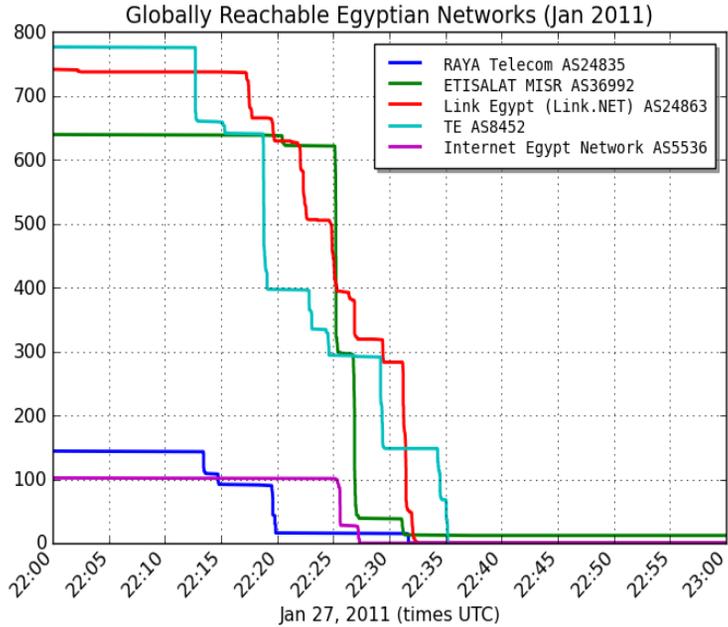
“분노의 날”(Jan25) 시위가 있던 1월 25일부터 이미 트위터에 대한 차단이 있었다. 정부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지만, 트위터 공식 트위터에는 교통량(트래픽)이 현저히 감소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sup>2</sup> 그에 이어 26일에는 구글과 페이스북 접속이 차단되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28일 “분노의 금요일”의 전날 밤에 급기야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전면 서비스 거부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이집트 수도 카이로 시간으로 27일 밤 10시 반을 넘으면서 인터넷 교통(트래픽)의 93%가 차단된 것이다.<sup>3</sup>

---

1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조동원, 인권오름 240호 나들터, 2011.3.2.

2 “New Social Networks With Old Technology - What The Egyptian Shutdown Tells Us About Social Media,” internet.artizans, 2011.2.10.

3 “Egypt’s Internet Blackout: Extreme Example of Just-in-time Blocking,” Masashi Crete-Nishihata & Jillian C. York, OpenNet Initiative, 2011.1.28. 이 때 누어(Noor Group) 인터넷 제공업자(ISP) 회선은 차단되지 않았는데, 그 고객 명단에 이집트 증권



출처: renesys.com

인터넷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위한 이동통신망 역시 차단되었다. 영국 기업으로 이집트 정부가 3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보다폰 이집트(Vodafone Egypt)는 이집트의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가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요구받았고 그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프랑스 텔레콤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비니(Mobinil) 역시 마찬가지였다.<sup>4</sup> 그에 더해 1월 31일 아랍 전역에서 알자지라 방송 신호에 대한 최악의 전파 방해가 있었고,<sup>5</sup> 이후로도 계속 전파 방해가 있다는 공지가 알자지라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차원의 인터넷 전면 폐쇄 사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2월 네팔은 왕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나라 전체에 국제적 인터넷 연결을 절단시킨 적이 있었고, 2007년 9월 29일 버마의 독재정권은 사프론 혁명(Saffron Revolution) 동안 정부가 시위대에 가한 폭력적 탄압을 시민들이 기록해 올린 사진과 비디오의 흐름을 막기 위해 인터넷 연결을 전체적으로 폐쇄시킨 바 있다.

---

거래소(Egyptian Stock Exchange), 이집트 상업 국제은행, 이집트 중앙은행, 이집트 신용평가국(I-Score), 이집트 항공 등 금융 정보 네트워크의 핵심 기관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31일 저녁에 차단되었다("Egypt's Net on Life Support," Renesys Blog, 2011.1.31).

4 "The Role of Multinationals in Egypt's Communication Shutdown," Business Ethics, 2011.2.2.

5 "Egypt's uprising: different media ensembles at different stages," John Postill, media/anthropology, 2011.2.10.

<sup>6</sup> 또 이란의 경우, 1천만 개의 웹사이트가 정치·사회적으로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접근 금지되어왔는데 2009년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을 때 정부는 시위대 관련 웹사이트와 해외 언론 웹사이트를 차단시키며 온라인 감시를 강화했고, 데이터 전송율을 80%까지 떨어뜨리면서 거의 폐쇄와 다름없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인터넷만이 아니라 이동통신망의 경우도 이란과 중국에서 부분적으로 텔레콤을 폐쇄한 적이 있었다.<sup>7</sup>

## 1. ‘막으면 돌아가고’: 풀뿌리 네트워크 기술

인터넷 전면 폐쇄는 핵 공격의 위기 상황에서도 취하지 않을 극단적인 조치지만, 체제가 무너지게 생긴 권력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잠재우면서 반정부 시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를 감행했다. 그러나 실제로 나타난 결과는 그 반대였다. 시위는 계속되고 도리어 더욱 확산되었다.<sup>8</sup>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온 사람들조차 이제 거리로 나가 시위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sup>9</sup>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 없던 시절부터 사회운동의 조직화와 대중동원에 필수적인 전통적인 풀뿌리 미디어의 활용이 더욱 두드러졌다. 시위대가 점유한 광장,<sup>10</sup> 거리의 낙서, 손팻말, 전단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전단지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인터넷 접근이 차단돼온 카이로의 저소득 계층 지역에 1월 25일 “분노의 날” 시위를 알리는데 가장 적절한 매체로 기능했다.<sup>11</sup> 시위 전술을 담은 유인물은 정보기관의 감시에 취약한 소셜 미디어보다는 이메일이나 복사와 직접 전달을 통해서 (재)배포되었다.<sup>12</sup>

점차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해지면서 그에 대항하는 시도가 여러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분노

---

6 “Egypt’s Internet Blackout: Extreme Example of Just-in-time Blocking”

7 “Digital Media and Iran’s Green Movement: A Look Back with Cameran Ashraf,” The Hub(hub.witness.org), 2009.12.15.

8 “How the Internet Kill Switch Didn’t Kill Egypt’s Protests,” Alix Dunn, meta-activism project, 2011.2.13.

9 “Egyptians Were Unplugged, and Uncowed,” NYTimes.com, 2011.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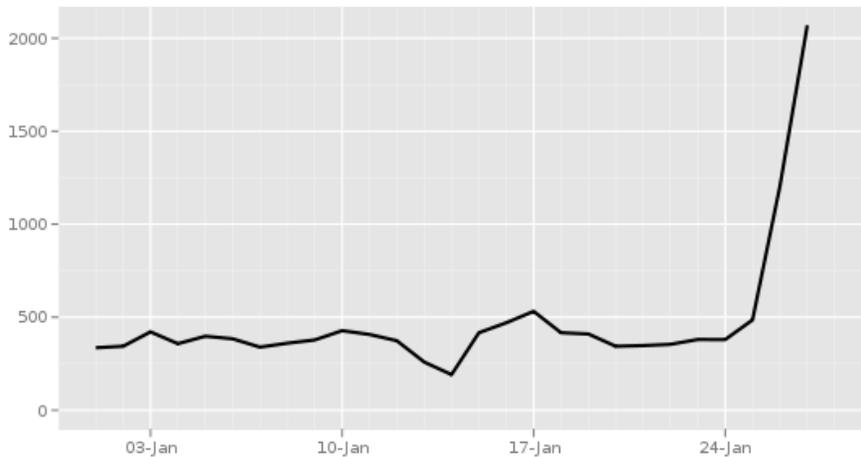
10 이집트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Tahrir Square, 해방 광장이라는 뜻)은 그 자체로 상징적인 공간적 매체였는데, 단적으로 다국적 즉석 음식점(KFC)은 시위대가 접수해 간이 병원으로 사용되었고, 아이를 가진 여성들의 시위 참여를 돕기 위해 광장 한 칸에 유치원이 마련되기도 했다. “Egypt: The camp that toppled a president,” BBC News, 2011.2.11.

11 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매체는 아마도, 무바라키 사퇴하기 이틀 전까지 오락 프로그램을 방영하거나 반정부 시위에 대한 흑색선전을 일삼은 국영TV라고 할 수 있는데, 시위대는 반정부 시위의 정당성과 인민의 집단적 요구를 알리는 전단지를 이들 지역에도 널리 유포했고, 실제로 25일의 시위에 이들 지역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했다(“How the Internet Kill Switch Didn’t Kill Egypt’s Protests”).

12 “Egypt’s uprising: different media ensembles at different stages”; “Egyptian Activists’ Action Plan: Translated,” The Atlantic, 2011.1.27. 시위 전술 전단지의 한글 번역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집트 시위 현장에 뿌려진 시위 전술 유인물,” The Dispossessed, 2011.2.3.

의 날” 시위가 있었던 1월 25일부터 트위터가 차단되고 이어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차단될 때 이집트 내의 사람들이 이를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지구적으로 분산된 프록시 서버(Global Proxy Cloud), 무료/자유 가상 사설망 서버(FREE VPN Server), 토르(Tor) 등이 사용되었다. 특히 익명의 인터넷 연결 기술인 토르(Tor)의 이용자가 급증했다.<sup>13</sup> 또,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에서 무선 인터넷 연결이 차단되었을 때, 광장 인근에 살거나 사무실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선 인터넷 공유기(wifi routers)의 비밀번호를 제거해 광장의 시위대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게 했다.<sup>14</sup> 그리고 휴대전화기를 모뎀으로 활용해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기도 했다.<sup>15</sup>

Directly connecting Egyptian Tor users



The Tor Project - <https://metrics.torproject.org/>

출처: the Tor blog

보다 안전하게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려는 장치도 마련되었다. 시위 참가자가 감청과 위치추적을 당하지 않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폰의 앱(안드로이드 기반)이 개발되어 보급되었다. 암호화와 사설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모바일 통신의 보안을 제공하는 ‘붉은전화’(RedPhone)와 ‘문자

13 “Recent events in Egypt,” The Tor Blog, 2011.1.29. 토르는 수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한 지구적 연대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토르의 계주와 다리(Tor relays and bridges)를 내려받아 자기 컴퓨터에 운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터넷 검열을 피해 익명의 네트워크 접속의 가능성이 커진다.

14 “New Social Networks With Old Technology - What The Egyptian Shutdown Tells Us About Social Media”

15 “Without Internet, Egyptians find new ways to get online,” Computerworld, 2011.1.28.

보안(TextSecure)이 그것이다.<sup>16</sup> 더 나아가 이용자가 감시당하는 위험 없이 안전하게 트위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적 트위터를 개발하려는 시도도 있는데, 그 이름이 또한 ‘타흐리르’(Tahrir, 해방)다.

인터넷이 전면 폐쇄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자 인터넷(하부구조)을 대체할 수 있는 풀뿌리 기술이 총동원되었다.<sup>17</sup> 인터넷과 이동통신이 폐쇄되었지만 유선전화는 살아있었기 때문에 텔레코믹스(Telecomix and We Rebuild) 등의 기술 활동가들은 먼저 쌀인 전화연결 모뎀을 다시 꺼내 1980~90년대 그랬듯이 전화를 통해 인터넷 연결을 시도했다.<sup>18</sup> 웹 이전의 컴퓨터 네트워크 기술인 사설 전자게시판(BBS) 역시 재활용되었다. 또, 팩스가 끊어진 채널을 대체하는데 이용되었다. 텔레코믹스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팩스(Telefax), 즉 ‘팩스-웹 연결’(fax-to-web bridge)를 제공했는데, 이집트로부터 팩스를 받아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신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삭제하고 그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발신자의 요청에 따라 원하는 이메일로 전송해주는 기능을 가졌다.<sup>19</sup> 이와 다르게 해킹행동주의 네트워크인 ‘무명씨’(Anonymous)는 정부의 부패상과 인권 침해의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 퍼뜨리기 위해 위키유출에서 공개된 미국 외교전신(cables) 중에서 무바라크 정권과 관련된 문서를 반복해서 팩스 전송했다.<sup>20</sup> 이것들 보다 더 오래된 기술도 활용되었는데, 아마추어 무선통신 혹은 햄 라디오(ham radio)가 그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햄 이용자는 면허증을 얻는데 정치적 인맥이 필요한 이집트 상황에서 시위에 반대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sup>21</sup> 사실, 전화연결 모뎀이나 팩스, 햄 라디오의 활용이 성공적으로 인터넷 연결을 대신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지배적인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풀뿌리 대안의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실현되는지 잘 보여준 것이다.

네트워크 연결 중에서도 현장의 속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한 대안적인 트위터 방식에 호응이 컸다. 먼저 미국의 한 대학원생은 이집트에서 소셜 미디어가 차단되자 그의 이집트 친구들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최신 정보를 계속 트위터 계정 ‘@Jan25voices’에 올리고, 휴대전화가 끊기자 유선전화로 지속했다. 그의 트윗은 “현지 전화( Live Phonecall)에 따르면: ...”하는 식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전문 기자들도 현장에서 보도하기 힘들었을 때 그는 실시간 현지 정보를 제공했다.<sup>22</sup> 흥미롭고 문 제적인 또 하나의 실험은 구글이 나선 일이었다. 구글은 이전같으면 해킹 활동가나 기술운동집단이

---

16 “Free Android encryption comes to Egypt,” The Register, 2011.2.10.

17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erebuild.eu/wiki/Egypt/Main\\_Page](http://werebuild.eu/wiki/Egypt/Main_Page) 그리고 <http://www.movements.org> 참조.

18 “Low-Tech and the revolution or: How a video of an egyptian girl forced us into technology of the 90s,” We Rebuild Interfax, 2011.2.2.

19 “New Social Networks With Old Technology - What The Egyptian Shutdown Tells Us About Social Media”

20 “Amid Digital Blackout, Anonymous Mass-Faxes WikiLeaks Cables To Egypt,” Forbes, 2011.1.28.

21 “Ham radio not a viable option for Egypt,” PC World Australia, 2011.2.1.

22 “Without Internet, Egyptians find new ways to get online”; “New Social Networks With Old Technology - What The Egyptian Shutdown Tells Us About Social Media”

했을 사회적 대안 기술 개발에 직접 뛰어 들었다. 마침 지난 1월 25일 구글은 전화에 소셜 미디어를 연결하는 서비스인 '지금말하세요'(SayNow)를 인수했는데, 이집트에서 인터넷이 폐쇄되자 전화로 트윗을 하는데 이를 활용했다. '말로트윗하기'(speak2tweet)가 그것인데, 이집트에서 전화를 통해 음성 메시지를 보내면 '지금말하세요' 사이트에 문자 메시지로 올라가고, 그 메시지에 대한 링크가 자동으로 트위터 피드(@speak2tweet)로 트윗된다. 그 음성이나 문자 메시지에 대한 번역은 군중외주의(crowdsourced) 번역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자원한 사람들이 구글 문서의 번역 페이지에 들어가 번역한 후에 '이집트 라이브'(Alive in Egypt)에 올리는 식이었다.<sup>23</sup> 이는 인터넷 연결이 없이도 트윗 - 즉, 실시간 단문 속보의 전달과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인터넷이 복귀되기 시작한 2월 2일에 등장하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널리 이용되었다.

또, 위성방송과 트위터가 결합된 형태도 있었다. 카이로의 한 미디어 연구자가 언급하고 있는 알자지라의 위성뉴스를 통한 트윗 방송(Satellite News Broadcast of Tweets)이다.<sup>24</sup> 이는 트위터를 통해 이집트 시위 현장의 정보가 외부로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외부에서 현장으로 정보가 되먹임(feedback)되어야 하는데 인터넷이 차단되면서 외부의 정보가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알자지라는 이렇게 현장의 활동가와 시민에게 시위 전술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더해 구글의 '말로트윗하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긴급 전화 번호를 계속 공지해주었다. 이렇게 전화와 트윗, 위성과 트윗이 결합되는 것과 다르게, 위성-라디오-입소문의 결합도 있었다. 아라비아 위성뉴스는 그 방송 내용을 라디오로도 내보내면서 그 도달 범위를 확장했는데, 그 연구자의 조사에 따르면, 라디오를 통해 위성뉴스가 방송되면서 차에서 이를 들은 운전자들이 차가 막힐 때 새로운 정보를 보행자들과 공유하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사회적 네트워크(인맥)를 통해 정보를 퍼뜨렸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 차단되자 그 전까지 서로 연계되지 않았던 네트워크 간의 행동가능한(actionable) 정보의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up>25</sup>

## 2. 풀뿌리 기술 저항의 역동(패턴)

인터넷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진 이집트의 사례는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 공동체 미디어가 어떻게 기존의 미디어 및 정보기술을 재결합시키면서 그에 대항

---

23 "New Social Networks With Old Technology - What The Egyptian Shutdown Tells Us About Social Media"; "Egypt's uprising: different media ensembles at different stages"

24 "How the Internet Kill Switch Didn't Kill Egypt's Protests"

25 "How the Internet Kill Switch Didn't Kill Egypt's Protests"

하고 대안을 구성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보는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핵심 요소가 된다. 반정부 시위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시위대 내부(해방광장 혹은 이집트 전역)에서 활발하게 오가는 정보가 있고, 대항해야 할 정부가 생산하고 퍼뜨리는 반정보가 있고, 외부의 국제연대 세력을 포함해 국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보가 또한 들락날락 해야 한다. 즉, 내부에서 소통되는 정보와 반정보가 있고, 내외부에 걸친 정보로서 내부로 들어가야 하는 것과 외부로 나가야 하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정보는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전달돼서 당장의 시위 전술을 구상하고 행동에 옮기기 위한 것이 있고, 현장과 지역에서부터 전지구적인 범위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사건의 연쇄와 흐름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다. 행동을 위한 정보는 최대한 실시간에 가깝게 유통될 필요가 있고, 속고를 위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느린 속도를 갖지만 입체적인 관점을 담아야 한다. 이런 속보와 분석의 정보 모두가 잘 유통되기 위해서 내외부의 정보 유통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때, 인터넷은 시위대 내부에서(혹은 활동가와 시민 대중간)의 쌍방향 소통을 위해서도 중요한 매개였지만 이집트의 억압적 체제를 고려하면, 특히 정부의 인터넷 폐쇄가 국제여론과 국제연대로부터 반정부 시위대를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였음을 상기해 볼 때 내외부의 소통에 더욱 결정적인 채널이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인터넷이 끊겼을 때 인터넷과 같은 내외부의 소통을 지속하기 위해 등장한 것들이 유독 많았던 것이다. 예를 들어, 위성-트윗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내부로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정보를 위한 채널의 복원이었고, 인터넷 대신 전화를 이용한 ‘말로트윗하기’ 역시 실시간으로 신속한 정보의 전달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위성-트윗과 반대로 이것은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화연결 모뎀이나 팩스 역시 국제적인 정보의 유통을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인터넷의 폐쇄에 맞선 시위대의 정보 미디어 행동주의는 내부에서, 그리고 특히 내외부간의 정보 흐름을 지속하고 유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종합될 수 있다. 반정부 시위의 역동적인 전개는 내부와 내외부모두에서 정보의 상호작용의 흐름이 얼마나 활발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보 미디어 행동주의는 상당히 결정적인 운동의 양상이 된다. 그래서 앞서 말한 전통적 풀뿌리 미디어를 비롯해 전화, 팩스, 무선통신, 라디오, 위성TV 등이 총동원되었고, 그 활용 방식도 평상시라면 잘 보기 힘든 것이었는데, 낡은 기술과 최신 기술이 결합되었고 기존의 방송 미디어(위성TV, 라디오 등)와 네트워크 기반의 소셜 미디어(트위터 등)가 결합되었다. 단적인 예로, 트위터는 실시간의 속보성 정보가 내부에서 그리고 내외부를 연결하는데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받아들여졌고, 인터넷이 차단되자 무엇보다도 이 소통 형식을 지속시키기 위해 (국제)전화, 위성TV, 라디오 등이 그 형식과 결합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두드러져보인다고 이를 두고 지배 언론은 ‘트위터 혁명’으로 명명했지만, 정치적 격변의 시기에 요동치는 전체 정보 미디어 환경의 재구성 속에서 벌어진 한 양상일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역동이 정부의 인터넷 폐쇄에 맞서는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시위대는 정부가 생산하고 퍼뜨리는 정보에 대항할 필요도 있는데 이를 위해서 오히려 (반-)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공세적 접근도 있었다. 인터넷 폐쇄 조치 자체가 그렇지만 정보경찰이 계정을 탈취한다거나 하는 해킹 공격이나 전파 방해가 시위대의 정보 흐름을 끊는 시도였고 이에 맞서 이루어진 무명씨의 정부 웹사이트나 이동통신 기업들에 대한 해킹 공격에서 볼 수 있듯이, 시위대 또한 정보의 흐름을 위한 대안적 채널을 새롭게 구성해낸 것뿐만 아니라 특정 정보의 흐름을 차단하는 전술을 함께 사용하였다.

### 3. 다른 인터넷은 가능하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우선, 소셜 미디어를 다시 받아들이고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문화에 파고 들어온 소셜 미디어는 꼭 현재와 같이 기업이 지배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일 필요가 없고, 심지어 인터넷일 필요도 없다. 이 새삼스러운 사실은 이번 격변 속에서 인터넷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되자 그 소셜 미디어가 기반을 두고 있던 공동체의 유기적인 사회(관계) 구조가 표면에 부상하며 가시화되었다.<sup>26</sup> 한 연구자는 이번 경험이 사람들이 연결성에 대해 갖는 자신의 권리(entitlement)를 지각하는 방식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했다고 하면서 소셜 미디어는 특정한 기술을 넘어서는 진정한 변화를 구성했다는 것이다.<sup>27</sup> 즉, 우리는 이번 아랍 혁명의 과정에서 페이스북 혁명이나 트위터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소셜 미디어가 사회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인과적인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정치적 변화과정에서 소셜 미디어가 혁명적 사회변화 과정에 함께 맞물리며 어떻게 보다 진보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인터넷의 속성 자체가 초국적 네트워크이듯이 이집트에서 인터넷이 전면 폐쇄되는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항한 조직적 움직임 역시 국제적인 것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일 역시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국제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단적인 예로, 아랍의 한 해커는 지난 6년간 지역의 활동가, 기자, 인권 변호사에게 암호화, 이메일에서의 보안(PGP), 토르 이용과 같은 풀뿌리 해킹 기술을 통해 인터넷에서 감시와 검열을 피하는 방법을 교육해왔다. 그는 또 사회운동가나 인권활동가의 보안, 프라이버시, 익명을 위한 자유소프트웨어 도구 모음 책자인 '보안 상자'(Security In A Box)의 아랍어 편집본을 만들어 보급하기

26 "The Religious Element of Egypt's Secular Revolution," Alix Dunn, meta-activism project, 2011.2.15.

27 "New Social Networks With Old Technology - What The Egyptian Shutdown Tells Us About Social Media"

도 했다.<sup>28</sup> 2009년 이란의 반정부 시위 때도 해외의 해커와 기술 활동가들이 억압적 정부가 인터넷의 접근을 제약하는 것을 우회하는데도 국제적인 지원을 시도했다.<sup>29</sup> 이집트에 인터넷 차단을 우회하는 프록시 서버를 제공한 '접근'(Access) 같은 국제적 기술운동 집단 역시 이란에서의 투쟁 경험을 통해 조직된 것이다. 또한 튀니지와 이집트의 활동가들은 리비아의 반체제 시위대를 지원했는데, 단적으로 벤가지 등 해방된 리비아의 동부 도시들에 인접한 이집트에서 국경을 통해 구호물자를 조달하기도 하고, 리비아에서도 인터넷이 폐쇄되자 현장에서 생산된 미디어를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대신했다.<sup>30</sup> 이와 같이, 국제연대는 인터넷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였다.

민중 봉기가 그랬듯이 정부의 인터넷 폐쇄 조치 역시 이집트와 여러 곳들로 도미노처럼 퍼져갔다. 하지만 이는 이번 아랍 혁명 시기 동안에만 볼 수 있는 특이한 인터넷 탄압 사례가 아니다. 반정부 시위가 터져나오거나 정보의 사유화와 상품화를 위반하는 정보의 자유 흐름이 거센 거의 모든 곳들에서 일시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인터넷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다.<sup>31</sup> 그래서 애초 인터넷이 핵공격에도 안전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기획되었던 것처럼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국가와 이윤창출을 위해 인터넷을 사유화하고 거둬 통제하려는 기업에 맞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인터넷, 말하자면 '대안 인터넷'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될 때가 되었다.

---

28 "[New Video: Cairo Geeks Survive Tahrir Square Assault](#)," Wired.com, 2011.2.2.

29 "[Digital Media and Iran's Green Movement: A Look Back with Cameran Ashraf](#)"

30 "[Libya's revolution headquarters](#)," Al Jazeera English, 2011.2.27.

31 가장 최근의 극적인 사례는 2010년 12월에 있었던 위키유출(Wikileaks)에 대한 미 정부와 아마존, 금융 기업들의 그 웹사이트 차단과 서비스 거부였다. 이 때도 대안 인터넷을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위키유출\(Wikileaks\)들과 대안 인터넷](#)," 조동원, 인권오름 236호 나들터, 2011.1.26.

## 아랍 민주화 운동과 대안 미디어의 역할

백옥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이집트 혁명과 대안미디어

“18일간의 혁명이 30년 독재를 뒤집어엮었다. 혁명은 그렇게 온다. 춤추고 노래하고 울고 껴안고 마음껏 기뻐해라. 승리의 날이니까. 그러나 혁명은 어느 날 '이별의 말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나간다.”

1월25일 처음 이집트 시위가 시작될 때 누가 오늘을 예측했을까?



사진은 뉴욕타임스 글로벌판 2011년 2월 10일자. 젊은이들이 랩탑으로 해방광장에서 찍은 비디오를 올리고 있는 사진. 밝고 활달하고 혁명적인 기운이 감돈다.

어디서나 희망은 젊음에서 나온다. 초기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조직했던 청년 운동가들이 시위 집결지에 대한 허위정보로 경찰의 감시와 방해로 따돌리고, 빈민 지역에서 50명으로 시위를 조직하여 해방광장에 도달할 때는 수천 명이 되었다. 반혁명세력이 무력을 휘두를 때 그들은 쇠망치로 돌을 깬고,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들에게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돌맹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 늙은 야당 인사들은 현재 집권층에 의해 길들여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의 자세가 신선하다. 기독교도 여성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걸작이다. "제대로 된 정부이기만 하다면 원숭이가 대통령이라도 상관없다."

젊은이들 못지않게 창의성을 저항과 연결시키던 엘 사다위(Ei Saadawy)도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무바라크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았던 그녀는 이집트로 돌아와 해방광장 시위에 동참했다. 전문 직종 지식인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를 가차없이 배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80세 할머니의 당찬 태도가 부럽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팬티를 벗어 무바라크에게 주었다고 비꼰다. 반면 타흐리르 광장의 텐트 속에는 새로운 역사가 싹트고 있음을 낭만적으로 묘사한다. 그 텐트 속에서 처음 보는 남녀가 함께 자고, 아기가 태어나고, 사랑이 싹트는 것을 찬양한다. 분명 혁명은 그런 것이다. 해방광장은 새로운 도시다. 그것은 새 날의 결혼이며,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껴안는 혁명의 연애이다. 이것이 남과 여, 종교의 차이를 한칼에 부숴버리는 혁명의 힘이다.

왜 이런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는 그저 파라오와 피라미드 정도에 멈추었을까? 이집트에 대해 뭐 별로 아는 게 없다. 미국을 조종하는 유대인의 시각과 미국의 입장과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한국의 정치문화 풍토에서 이집트는 밥맛없는 후진국 정도로 인식되어서 그럴까? 아무튼 이 위대한 나라의 민중은 이제 기지개를 펴고 포효하기 시작했다. 21세기를 멋지게 연 이집트 민중이 자랑스럽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뒤바꿔 놓을 것이다. 어렵게 얻어낸 민주주의를 15년 만에 까먹고 있는 우리 현실이 부끄럽다.

미국의 조사기관 PEJ(The Project for Excellence in Journalism)가 발표한 주간 뉴스 보도 지수(News Coverage Index)를 보면, 지난 1월31일에서 2월 6일 일주일 동안에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미국 뉴스의 56%를 차지하였다. 이는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차지했던 비율보다 높다고 한다. 자국 군대가 파견된 전쟁보다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는 왜 이집트 민주화 운동을 주목하는가? 이집트 민중이 2011년 세계의 정치 질서와 중동 지역의 정세를 혁명적으로 변혁시킬 수도 있는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근대적인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 근대적인 민주주의 혁명이지만,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제국 질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매우 현대적인 힘이다. 미국에 의해 억지로 유지되고 있는 불안정한 중동 지역 정세에도 지층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세계의 변방이고 상대적으로 전현대적인

이집트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위는 거꾸로 너무나도 미래적인 현실이다.

정치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차원에서도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CNN 등 미국 언론보다 알자지라가 현실보도의 질과 영향력 차원에서 모두 앞섰다. 대중 스스로가 미디어가 되는 인터넷 시대의 시위에서 알자지라(AI Jazeera)와 데모크라시 나우(Democracy now!, <http://www.democracynow.org/>)는 인터넷 시대의 저널리즘의 형식과 내용이 어떠해야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물론 이들은 미디어일 뿐이고, 주인공은 이집트 민중이다. 데모크라시 나우는 진보적 저널리스트들이 만든 독립 방송국으로서 하루 한 시간 방송한다. 주류 언론이 건드리지 않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전쟁과 평화, 민주화 운동을 주로 다룬다. 데모크라시 나우는 시청자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독립 저널리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데모크라시 나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더 멋져 보인다. 독립 저널리스트나 개인의 집중탐사보도. 우린 그런 거 별로 없다. 기껏 추적60분, 피디수첩. 그것도 요즘은 아쉽지만. 데모크라시 나우에서 촘스키와 인터뷰하는 아이굿맨(Amy Goodman)이 대표적 탐사 저널리스트다. 53세의 그녀가 KBS 뉴스 캐스터보다 얼마나 젊고 멋진가.

이와 더불어 위키리크스도 인터넷 시대 새로운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 대사관 전문은 튀니지 시위의 단서를 제공하였고,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진행되던 시기에도 대사관과 이집트 관료 사이의 대화를 유출하면서 부패한 정부의 실태를 폭로하였다. 그런가 하면 알자지라는 이번 이집트 민주화 시위를 통해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언론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알자지라는 이집트 현지에서 7개 팀을 보내 취재를 전개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했다. 알자지라는 현장에서 취재하고, 인터넷으로 알리고, 자사가 만든 뉴스를 자유롭게 열어놓는 '현장의 열린 방송'을 실현하였다. 알자지라는 1년 전 영상 뉴스를 크리에이티브 라이선스(CCL)로 공개하였지만, 이번의 뉴스 공개는 사뭇 의미가 크다. 연예 오락 프로그램 만들어 푼돈이나 모아가는 한국 방송사들과는 생각의 스케일이 다르다. 이집트 민주화 혁명에서 알자지라는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들은 트위터를 통해 올라오는 정보를 취합하거나 정보 소스로 활용하였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지리적 장벽을 넘어 폭넓게 뉴스를 전달하였다. 서방세계의 일방적이고 편향된 시각에 대항하여 이집트 시민의 관점에서 사태를 평가하는 논조를 흘트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현장의 사실에 충실했다. 그 결과 이집트 정부가 1월30일 반정부 시위를 실시간으로 보도하던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카이로 지국을 폐쇄한 데 이어, 31일에는 알자지라 기자 6명을 한때 체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 이집트 정부의 미디어 차단책

페이스북, 트위터 활용 -> 트위터 폐쇄(1/25) -> 인터넷 단절, 이동전화 단절(1/27) -> 이동전화 복귀(1/28), 내외부 소통단절 -> 인터넷 재개(2/2).

이집트 당국은 무엇을 어떻게 막았는가? 그들은 트위터 서비스를 금지하고, 인터넷 자체를 불통하게 만들었고, 국영방송만 남기고 알자지라 및 해외 언론을 통제하였다. 어디나 돌대가리들이 권좌 옆에 포진하고 있다. 이집트 당국의 인터넷 절단이 오히려 이집트 시위의 폭발적 확산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선도적 활동가들의 페이스북 활용은 서로 간에 시위 날을 잡고 연락하는 초기에 그 역할을 다했다. 이번 시위 이전 2005년부터 이집트에서는 인터넷을 활용한 시민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다. 한 예로 'Shayfeen.com(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다, we are watching you)을 들 수 있다. 이집트의 전직 국영방송 캐스터 보사나 카멜(Bosayna Kamel)은 '그들'의 뉴스를 달달 읽다가, '실재 현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사직한 후, 2006년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다'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러한 움직임들이 이번 시위를 촉발하고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 다음 대중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시위는 경찰과의 싸움을 통해 확대재생산 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을 끊어봤자 해외에서 이집트 시민을 향한 지지 여론은 트위터 등의 미디어를 통해 더욱 확장된다. 어떤 돌대가리 작품인지 인터넷 역사에 남을 짓만 하나 확실히 해냈다.

인터넷이 없던 1월27일부터 2월2일까지 일주일간의 이집트 정세는 뉴스 허브로서의 알자지라와 무수한 현장 운동 참여자간의 결합을 통해 전개되었다. 이번 이집트 시위에서 또 하나 눈에 두드러지는 현상은 트위터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의 활용이다. 트윗과 리트윗으로 혁명을 할 수는 없지만 혁명을 퍼뜨릴 수는 있다. 이집트 당국에 의해 끊겨버린 인터넷 망의 조금 열린 개구멍으로 오가던 트윗은 이집트의 안과 바깥을 연결한 소중한 통로였다. 트위터 해쉬 태그(#egypt, #jan25, #tahrir)를 통한 이집트 바깥의 지지와 여론 형성 또한 다른 차원에서 이집트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이집트 당국이 인터넷을 끊은 후에도 트위터 #Jan25에는 일초에 10개씩 트윗이 올라왔다. 인터넷을 통한 외부 지원자들의 지지와 여론 형성은 또 다른 힘이었다. 위키리크스는 이집트 시위에 맞춰서, 유출된 이집트 대사관 전문을 계속 흘리고 있었다. 트위터, 위키리크스, 블로그, 알자지라, 가디언 등 기성 언론사로 연결되는 흐름이 이집트 외부에서 이집트 국민을 지원하는 큰 힘이 되었다.

모바일폰은 발 달린 카메라다. 그것이 인터넷과 결합되면 실시간으로 현장 영상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퍼나르기를 통해 복사되어 발 없는 말처럼 돌아다녔다. 조그만 개구멍 하나라도 열려있으면 정보를 통제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현장의 시민과 기자와 방송국과 인터넷

이 주고받으며 불리는 정보는 거의 시차 없이 세계에 전달된다. 여기에 이집트 민주화 운동이 차지하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 맥클루한(Mcluhan)은 미디어가 인간의 감각능력을 확장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스마트폰(미디어)의 육체를 확장해준다. 발 달린 스마트폰의 탄생. 모바일폰은 말 그대로 움직인다. 인간과 미디어간의 주종관계를 헤아리기 힘들게 되었다. 이런 경험은 이미 지난 2008년 한국의 촛불 시위에서도 나타났다.

## 미국과 한국의 언론

츨스키는 "이집트 시위는 내가 기억하는 것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 봉기"라고 데모크라시 나우의 굿맨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은 끝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독재자 편을 들면서 거기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그때야 180도 입장을 바꾼다." 미국은 끝까지 게긴다는 게 츨스키 평가의 요점이다. 실제로 미국은 이집트 상황 전개에 따라 갈팡질팡하다가 퇴임을 거부한 무바라크 성명에 뒤통수를 맞기도 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아랍권의 시민혁명이 이처럼 뜨겁게 일어나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아랍의 민주화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부시처럼 이라크를 침공한 것 외에 미국은 아랍권에서 무엇을 했을까. 이집트는 미국, 이스라엘과 아랍권을 이어주는 완충 역할을 했다. 미국제 최루탄에 이스라엘이 제공한 감시 장비는 미국-이집트-이스라엘 삼각체제의 모양을 짐작하게 한다. 무바라크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것이다. 무바라크 정권 이후에는 미국-아랍, 이집트-이스라엘의 관계에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다. 이 지점이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거꾸로 연쇄적으로 번지는 아랍권 민주화 운동은 70-80년대 라틴아메리카의 반미 운동과는 다른 맥락에서 2010년대 반미운동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미국과의 관계도 관건이 되겠지만, 문제는 내부적 민주화의 탄탄한 틀이 개별 나라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갖춰질 수 있는가이다. 민중적 차원의 민주화와 실질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필리핀처럼 역성혁명적 민주화의 덫에 걸릴 확률도 있다. 새로운 세계정세, 아랍권 민주화, 네트워크와 민주화, 여성과 민주화, 전근대와 근대, 현대의 복합체에 대한 이해, 이집트 혁명의 원인 등 이번 이집트 민주화 시위는 여러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지난 2월 이집트 시민혁명 기간 동안 세계의 관심과 지지가 이집트 '해방광장(Tahrir Square)'에 쏟아졌으나 한국의 정치계와 방송만은 예외였다. 한국 방송은 어떠했나? 이집트 시위가 절정을 향해 치달던 1월29일 토요일, 이집트 상황을 뉴스로 확인하려고 KBS 9시 뉴스를 들었다. 시작하자마자

아직 도착도 안한 삼호 주얼리호 석선장 이송 관련 보도를 10분가량 하고, 이집트 관련 뉴스는 5분도 채 안한다. 국민 한명의 생명에 이토록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사례를 이제껏 나는 보지 못했다. 공영방송으로서 매우 훌륭한 자세지만 그 내막을 알면 부끄럽기 짝이 없을 것이다.

언론은 실재가 아니라 자신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헛것을 보여주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현실이다. 이집트에서 폭력과 난동과 무질서와 약탈을 보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믿음과 현실(실재가 아니라)이 유지되고 맘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집트 국영 티브이는 탱크와 군인들의 삼엄한 경계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시위대는 별로 없다. 한국 티브이는 이집트 시민과 그들의 시위보다는 서둘러 귀국하는 외국인을 보여준다. 그들은 불안을 본다.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다. 나도 나대로 본다. 나는 이집트에서 약탈 대신 투쟁과 시위를 본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다. 나는 희망을 본다.

그런데 "나는 나대로 본다"는 얼핏 주체성 있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상대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언론은 실재와 현실의 관계를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만 언론은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보이는 대로 보거나, 생각대로 본다면 그것은 인터넷 시대의 언론이 될 수 없다. 인터넷 시대의 시위에서는 대중 스스로가 미디어가 된다. 언론은 대중의 눈으로 현실을 볼 때 실재에 더 접근할 수 있다. 대중의 눈으로 실재를 보려면 우선 현장 속에 있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언론은 실재를 구성하고 있는 복잡한 요소들을 가려내고 종합하면서 실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 스스로 새롭게 현실을 만드는 실천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기성 한국 언론은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실재 이집트 시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아무런 실천과 개입을 하지 않았다. 현장의 취재도 없고, 인터넷과의 연결을 통한 새로운 전달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애당초 이집트 민주화 따위에는 진지한 관심도 없었던 국내 언론은 엄격히 말해 이 시대의 언론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방송과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 또한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군부독재에 대항해서 민주화를 쟁취했던 나라, 촛불시위로 인터넷을 시위와 결합하여 사회운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한민국에서 이집트 시민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정치인이나 단체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적어도 시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1월말 즈음해서 지지 성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지구촌 사회의 민주화를 겪었던 나라의 국격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니었을까?

이번 이집트 민주화 운동은 여러 가지 생각꺼리를 우리에게 던져주었다. 1980년 광주 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08년 촛불시위를 거친 우리에게 그것은 머나먼 남의 나라의 때늦은 민주화 운동만은 아니다. 이집트 민주화 운동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겪었던 정권의 폭력성,

6월 항쟁에서 보았던 시민의 힘, 그리고 촛불시위를 통해 드러났던 인터넷 시대의 시위 문화를 한 데 뒤섞어 놓은 혼합물처럼 보인다. 그것은 저 멀리 아프리카 북단에서 벌어진 남의 나라 이야기로 보기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었다. 끝까지 버티는 미국의 행태, 정권의 지연전술, 시민의 저항과 참여, 그리고 치졸한 반혁명전략과 수습방식 등을 숨 가쁘게 쫓으면서 가슴 졸이던 보름간이었다. 그들도 우리처럼 혁명은 이별의 말도 없이 어느 사이에 우리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이제부터라도 이집트 민주화 운동의 실재를 알기 위해 좀 더 그곳에 가까이 다가서야 할 것이다.

## Section 010. 이슈

"우리 약에 손대지마!"...인도-유럽FTA가 가져올 위험 / 권미란  
법원도, 유엔도, 국가인권위도 "방심위, 인터넷 심의 안돼!" / 장여경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 정민경  
허위사실과 인터넷 / 장여경  
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 오병일  
덧글 알바, 혹은 기름땀 짜는 디지털노동 / 조동원

## "우리 약에 손대지마!"... 인도-유럽FTA가 가져올 위험

권미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정보공유연대 IPLeft)

나에게 인도는 가난, 카레, 요가, 갠지스 강이 연상되는 정도였다. 인도가 '세계의 약국'으로 불린다는 걸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2002년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강제실시 투쟁당시 인도에 글리벡과 똑같은 제네릭(복제약)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안도했었지만 인도의 역할이 '세계의 약국' 수준인 줄은 몰랐다.

### 인도, 전 세계 에이즈 치료제 90%를 공급하는 '세계의 약국'

인도는 전 세계 제네릭 의약품시장의 20%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 필요한 에이즈치료제의 90%를, 전 세계 에이즈치료제의 50%를 공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펀드,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를 통해 115개국에 에이즈치료제가 공급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6년 이래 인도에서 생산된 제네릭 에이즈치료제는 이들 국제기구에 의해 공급된 에이즈치료제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2008년에는 87%를 차지했다. 태국, 브라질, 남아공, 네팔처럼 정부차원에서 공공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인도산 에이즈치료제까지 포함하면 그 비중은 90%를 훨씬 넘는다. 소아용 에이즈치료제 역시 인도산이 91%를 차지한다. 즉 북미, 유럽, 일본, 한국 등 소위 선진국과 선진국흥내를 내는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도산 에이즈치료제에 의존하고 있다.

전 세계에 3300만 명이 넘는 에이즈 감염인이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 에이즈치료를 받고 있는 이는 500만 명이 넘는다(2009). 2001년에 24만 명이 에이즈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이다. 값싼 인도산 에이즈치료제 덕분이었다. 그러나 WHO의 에이즈치료가이드라인

(2009)에 따르면 에이즈치료가 필요한 이는 1500만 명에 이른다. 아직도 2/3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으며, 내성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2차, 3차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접근은 더욱 제한적이다. 인도가 제네릭 생산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더 값싸게 더 많이 공급하기를 120개국 이 넘는 국가의 에이즈환자들은 간절히 소망한다.

한국에서도 인도산 제네릭이 필요하다. 약값이 너무 비싸서 환자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경험을 우리는 뼈저리게 겪었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과 똑같은 인도약 '비낫'의 가격은 글리벡의 1/20이다. 한국에서는 한 달에 100~150만원하는 1차 에이즈치료제에 비해 인도약은 100달러도 되지 않는다. 지금도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는 약을 구하지 못해 인도약을 수입하려는 환자들이 있다. 의사가 처방을 해주지 않아 수입이 불가능할 때는 밀수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인도는 한국의 환자에게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다.

### '세계의 약국' 을 철거하려는 인도-유럽 FTA

인도가 '세계의 약국'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인도특허법의 역사와 더불어 인도의 활동가들이 특허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특허강화를 반대하는 강력한 운동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인도는 의약품 수요의 약 85%를 외국계 제약회사에 의존하고 있었고, 약값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인도정부는 1972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인도의 제약회사들은 제조공정을 달리하여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인도는 WTO 트립스협정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 따라 2005년에 의약품에 대한 물질특허제도를 재도입했지만, 특허요건을 '기존약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효과가 입증된 경우(인도특허법 section3(d))' 등으로 제한하여 '세계의 약국'으로 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인도특허법은 자료독점권이나 특허-허가 연계와 같은 '트

립스 플러스'조항을 담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초국적 제약기업은 인도특허법에 트립스 플러스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끊임없이 소송과 로비를 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2006년 1월에 글리벡 특허가 거절되자 인도특허법 section 3(d)가 트립스협정에 위배된다고 2006년 5월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2007년 8월과 2009년 6월에 각각 노바티스의 소송을 거절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노바티스는 section3(d) 조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2009년 8월에 대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또한 바이엘사는 항암제 '넥사바'와 똑같은 약을 인도 시플라사가 판매허가를 받자 특허-허가 연계제도를 도입하고 시플라사의 판매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까지 끌고 간 바이엘사의 소송은 2010년 12월에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대법원은 특허제도와 의약품 규제제도는 별개이고, 인도법 하에서는 의약품 규제기구가 특허약의 제네릭 판매허가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시플라사의 판매허가여부는 바이엘사가 이미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다를 문제라는 것이다.

앞서 로슈사 또한 항암제 '타세바'에 대해 특허-허가 연계를 주장하다 대법원에서 기각당한 바 있다. 2008년에 시플라사가 타세바와 같은 제네릭을 시판하자 로슈사는 특허-허가연계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그리고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시플라사는 특허무효소송으로 맞대응했다. 2009년 4월에 고등법원은 시플라사의 판매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2009년 8월에 대법원은 로슈의 소송을 기각했다. 현재 특허소송은 진행 중이다. 인도에 있는 초국적기업들의 연합인 '인도제약생산자조직(OPPI, Organisation of Pharmaceutical Producers of India)'은 자료독점권, 특허-허가연계, section3(d)의 개정을 촉구하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런 초국적 제약기업의 요구를 한방에 관철시키려는 것이 인도-유럽FTA이다. 인도정부와 유럽연합은 의약품자료독점권과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에 대한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고 3월에 체결할 예정이다.

의약품에 대한 독점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특허권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독점권이다. 153개국이 가입한 WTO 트립스에 따라 최소 20년의 특허보호기간이 보장된다. 자료독점권은 의약품 판매승인을 받을 때 제출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임상시험 자료를 제네릭 제약회사가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자료독점권이 부여되면 특허가 없는 혹은 특허가 만료된 의약품일지라도 판매독점권이 생기게 되어 제네릭 생산과 수출을 못하게 되고, 심지어 강제실시와 같은 특허권의 공

공적 사용도 못하게 된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권에 비해 독점기간이 짧지만 훨씬 간편한 절차를 거쳐 쉽게 얻을 수 있다. 초국적 제약회사가 노리는 것은 인도의 특허요건에 미달하는, 임상적 효과가 더 낮지도 않은 약들에 대해 더 수월한 방식으로 독점을 획득하여 제네릭의 생산을 막고 비싼 약값을 받으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집행조항은 초국적기업들이 지재권 침해를 빌미로 사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민·형사소송을 손쉽게 제기하도록 하고, 과도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제네릭을 위조품으로 간주하여 압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인도활동가들은 투자자-국가소송제가 포함되어 약가인하조치와 같은 국내보건정책 결정권이 훼손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자료독점권의 폐해: 돈 없으면 약 먹을 자격이 없다는 그 말

자료독점권은 '돈 없으면 약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과 같고, 이름뿐인 약들만 존재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에서도 들어본 말이다. 초국적 제약사 로슈가 2004년에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을 보험 등재까지 해놓고도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통해서도 공급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이름뿐인 약이다. 그 이유에 대해 로슈는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실제 푸제온의 약값이 비싸다는 점에서, 한국뿐만 아니라 경제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국가에는 푸제온 공급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약업신문> 2008. 5.22).

특허권이든 자료독점권이든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으로 인해 환자들이 받을 고통은 같다. 자료독점권의 폐해는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다. 초국적기업들은 특허권보다 자료독점권을 얻기가 훨씬 간편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특허보다는 자료독점권을 통해 독점을 획득해왔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과테말라와 요르단은 자료독점권 때문에 약값폭등을 초래했고, 이름뿐인 약들로 가득하다.

요르단은 2001년 12월에 트립스플러스 조항을 담은 미국식 FTA를 처음 체결한 나라이다. 미-요르단 FTA에 관한 옥스팜 보고서(2007)에 따르면 2001년 이후부터 2006년 중반까지 21개의 초국적 제약사가 요르단에 등재한 신약의 79%만큼 이 오로지 자료독점권 때문에 제네릭이 출시되지 못했다. 즉 이 79%에 해당하는 신약은 특허권이 없지만 자료독점권으로 인해 독점을 획득한 약들이다. 이 신약들의 가격은 자료독점권이 없는 이웃나라 이집트에 비해 현저히 비싸다. 당뇨약 '메트포

민'은 8배, 고지혈증약 '심바스타틴'은 5배에 달한다. 전혀 구매기록이 없거나 미미한 신약들이 허다한 것은 당연지사다. 요르단 의약품시장에서 제네릭이 없는 독점약의 비중은 2002년 3%에서 2006년 중반에는 9.4%까지 늘어났다.

과테말라는 1999년에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했고, 2005년에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을 체결했다. 자료독점권은 2000년에 도입되어 5~15년간의 독점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CPATH 보고서(2009)에 따르면 자료독점권이 있는 약은 같은 치료계열의 약값과 비교했을 때 무려 1000배가 넘는 약도 있다. 고지혈증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크레스토'는 같은 치료계열인 제네릭 '플루바스타틴' 캡슐의 2.5배이고, 당뇨병치료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란투스'는 인슐린 주사액의 8.5배, 항진균제인 '브이펜드 주'는 제네릭 '플루코나졸' 캡슐과 '이트라코나졸' 캡슐에 비해 각각 1208배, 264배에 달했다.



한EU, 인도 EU FTA 중단 촉구 기자회견 (2011.3.2)

## 억만금을 준다 해도 대학살을 초래하는 거래는 중단되어야

하지만 FTA를 체결한 후 민중에게 억만금이 돌아갔다는 사례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식량·의약품 가격 폭등, 공공서비스의 붕괴, 주권 박탈로 이어졌을 뿐이다. 특히 인도는 120개국을 넘는 개발도상국의 민중에게 '세계의 약국'인 만큼 그 피해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 전 세계의 환자와 활동가들은 3월 2일에 인도-유럽 FTA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야 할 말은 국경없는 의사회가 하고 있는 캠페인([https://action.msf.org/en\\_CH](https://action.msf.org/en_CH)) 구호면 족하다.

"유럽! 우리 약에 손대지마(EUROPE! HANDS OFF OUR MEDICINE)."

- <프레시안>(2011년 3월 1일)에 실린 글입니다.

## 법원도, 유엔도, 국가인권위도 “방심위, 인터넷 심의 안 돼!”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한 사례를 보자. 2009년 멜라민 파동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특히 2월 24일 식약청이 국내 유수의 제과업체 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식약청의 발표 이후 인터넷에서는 이들 제품 목록을 거명하며 업계를 비판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26일 식약청은 일부 제품들에 멜라민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기준치 이하라는 내용의 정정 발표를 하였고, 해당 회사는 게시물들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모두 삭제하여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요청하였다. 3월 16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은 이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인다. “게시자 입장에서는 의심되는 원료를 사용해서 잠정적으로 유통 중지되었다는 사실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그 정보는 공익적 정보일 수 있습니다(엄주웅 위원)”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준언론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수정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박명진 위원)”는 의견도 있었다. 결국 멜라민 파동에 대한 게시물 25건이 이날 삭제되었다. 손쉽게.

자, 방심위의 이 결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째, 인터넷은 방송과 다르다. 그런데 이들 심의 위원은 인터넷을 방송처럼 보고 있다. 방심위는 이 매체에 대하여 다른 매체에서 요구되는 ‘정정보도’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가 관철되기 어려운 기술적 환경 속에서, 그것을 자신들이 ‘수정해줘야 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둘째, 지금 ‘명예훼손’이라는 ‘불법성’을 심사하는 이들의 어느 누구도 자격미달이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비방할 의도’가 범죄 구성 요건 중의 하나이며, 형법에서는 그것이 공익을 위한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그런 고려나 전문성이 없다. 셋째, 절차가 엉터리다. 게시물 삭제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합당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하다못해 피고인으로 법정에서더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들은 밀실에

서 당사자의 의견 진술 한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다. 누가 이들에게 인터넷의 모든 게시물을 자기들 맘대로 뜯어고칠 권력을 주었는가? 행정기관이 이를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금지한 '검열'이다. 물론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는 의미의 '사전적인 검열'은 아니지만, 인터넷은 사전 심사라는 것이 원체 불가능한 매체이니 검열과 다를 바 없다. 무엇보다 이런 대량 게시물 삭제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후 네티즌 일반에 불어 닥치는 '위축적 효과'는 이 사태를 위험적인 국가 검열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행정기관의 검열이 위험한 것은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을 통제하고자 시도할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심위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당시 민감한 게시물들을 자의적으로 심사하고 삭제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10.5.11)

방심위는 자기 조직이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주구장창 주장해 왔다.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행정기관도 아닌 조직의 시정요구가 일선에서 수용되는 비율은 99%이다. 이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최병성 목사님의 용기 덕분에, 법원이 이 모순적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지난 2010년 2월 1심 법원은 방심위가 행정청이며, 방심위의 시정요구는 행정처분이고, 최목사님의 글을 삭제한 결정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판결하였다. 방심위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지만, 지난 2월 고등법원은 방심위의 활동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위헌적이라며 헌법심사를 제청하였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 위임입법금지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강국 한국에서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시시콜콜히 심의하는 문제는 국제적인 인권기준에서 비추어 볼 때에도 문제가 되어 왔다. 지난 해 6월 한국을 방문했던 프랭크 라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은 “방심위의 폐지를 권고”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통령 임명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심위가 온라인상의 정부 비판 내용을 삭제하는 사실상의 ‘검열기구’로 기능할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안전장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9월 방심위의 인터넷 행정심의 제도의 인권침해성을 지적하며 이를 민간자율심의기구에 이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원도, 유엔도, 국가인권위도 방심위의 인터넷 행정심의에 대하여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결정문에서 “민주주의에서 어떤 표현이나 정보의 가치 유무, 해악성 유무를 국가가 1차적으로 재단하여서는 안 되고 시민사회의 자기교정기능, 사상과 의견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면서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다양한 의견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봉쇄한다”고 비판하였다. 구구절절 옳은 얘기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단만 남았다.

\* 언론인권센터가 발간하는 <언론인권회보>에 기고한 글입니다

## 인터넷 시대의 프라이버시

정민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금 당장 포털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아이디를 쳐보라. 이 단순한 정보로 알 수 있는 당신에 대한 정보는 어디까지인가? 나는 이따금 온라인상의 나의 행적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불안할 때가 있다. 이런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요즘 인터넷에서는 '지하철 반말녀' '버스 욕설남' 등의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오프라인 상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만한 행동을 한 사람의 영상을 누군가가 찍어 올리고 부도덕한 행동을 한 자에게는 비난과 함께 일명 '신상 털기'가 시작된다. 개인이 한 순간 저지른 부도덕한 행동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 사회적 낙인이 되는데 이는 참 가혹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당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면 될 일인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는 또 다른 2차, 3차 행위가 이어진다.

영상 속의 인물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인터넷상의 활동은 어떠한지 다양한 종류의 신상정보는 순식간에 까발려진다. 이 정보는 대부분 그 자신이 공개를 하거나 자신이 인터넷에 남긴 흔적을 기초로 한다. 개인이 온라인



지하철 반말녀 동영상 캡처화면

에 스스로 올린 정보라 하더라도 수집하여 프로파일링 하여 공표한다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 올린 정보, 물건을 살 때 남긴 기록 등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파일링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도 유추가능한데 이는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삶 속에 타인의 사생활 엿보기는 일상화 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개인이 저지르는 타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개인만의 잘못일까? 정부 혹은 기업, 인터넷 포털들은 문제가 없을까? 프라이버시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 정부와 기업의 합작으로 프라이버시권은 바닥으로

정부는 범죄 예방이나 시민 보호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수사 편의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위협하기도 한다. '천안함 사건'에 관해 의혹제기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수사하며 수년치 이메일 내용을 경찰이 들여다 본 사례, '회피 연아' 동영상 올렸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포털에 영장 없이 게시자 신상 정보를 요구했고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확인도 받지 않은 채 신상 정보를 제공했던 사례가 있다.

이 사례들을 보면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사이트 가입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포털 사이트에 의해 언제 어떻게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제공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항상 당신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 확보와 고객 관리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마케팅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서 자신의 정보를 제시하면 편리하게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소개 받을 수 있다. 내가 입력한 신상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선 기업을 믿어본다. 그러나 어느 날 어디선가 광고성 전화가 오고 스팸메일이 여기저기서 오기 시작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한 곳인데 여러 곳에서 그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긴" 약관을 읽지 않았으며 개인정보가 다른 업체에 양도가 되는지의 여부도 확인해보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동의를 할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는 기본으로 요구하며 이러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가입 자체를 할 수 없다. 포털사의 개인정보 요구 수준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시되고 있다. 온라인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만 하는 구조이다.

이렇듯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일까? 보안기술이 부실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근본적인 문제는 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유출되는 것이다. 민간에서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소중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지 않는다. 어딘가에서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1원에도 팔린다고 하니까. 당신의 개인정보는 얼마의 값어치를 하는가? 나는 5000포인트에 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와 이름)를 넘겼던 적이 있다. 그 대가로 어디선가 떠돌고 있는 나의 개인 정보에 대한 불안감은 남겨졌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아이핀’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는 정부가 지정한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할 테니 주민등록번호 대신 발급하는 번호를 쓰라는 것이다. 아이핀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다. 문제의 본질은 기업이 과도하게 개인신상정보를 요구하고 수집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사용 확대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기술 발달과 더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당할 수 있고,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수도 있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와 함께 우리는 스스로 자기 정보를 통제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이다. 인터넷에 무심코 쓴 나의 신상 정보가 나중에 칼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 이 글은 인권오름 235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허위사실과 인터넷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소위 "허위의 통신"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오늘 한국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 합리성이 충격적이다. 벌써 일각에서는 반(反)사회 인터넷 유언비어가 '면죄부'를 누리게 되었다며 '법치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입법'이 절실하다고 성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또 다른 논란에 불을 붙였다.



'허위의 통신'과 표현의 자유:위헌결정의 의미와 대안 토론회(2011.1.12)

사실 논란은 인터넷이 인류 역사에 등장한 이후로부터 계속되어 왔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둘러싸고 전쟁에 가까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위키리크스'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전쟁은 각국 정부 대 세계 시민 간의 전쟁이다. 정부는 말한다. 표현수단은 그것을 표현할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예술성을 판단할 몫이 없는 이들에게 주어졌다. 이것은 지극히 과분하고 우려스런 사태이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몫 없는 자들이 양산한 허위사실이 판을 치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인터넷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 전후로, 이 논쟁에 한 층을 더해 왔다. '인터넷'에 대한 정치적 '색깔론'이 그것이다. 2008년 촛불시위 이후로 많은 이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을 설명하는 언어를 찾아 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이 정부의 세력 일각은 그 배후를 특정한 정치 세력으로 밝히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시민들이 인터넷에 떠돈 '괴담'에 현혹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들에게는 이 '배후론'이 거리의 시민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었고, 그래서 2008년 7월 촛불시위를 한풀 수그러뜨리고 전열을 가다듬은 정부가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밝힌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허위의 통신' 조항이 1961년에 제정되고 사문화된 지 근 50년만인 '광우병 정국'에서 일반 시민을 형사소추하는 데 재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필연적이었다. 그들은 법전에서 인터넷을 규정하는 그들의 언어를 찾아내었다.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의 '허위사실유포죄'가 대역죄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지배적이었다. 대역죄는 말 그대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저지른 죄"로서 왕권을 범하거나 임금을 죽이는 죄이다. 어떻게 감히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다른 서술이 인터넷에서 판을 치도록 놔둘 수 있겠는가?

2008년 5월 '광우병 괴담'을 '허위의 통신' 조항으로 형사소추하기 직전에, 법무부는 '광우병 괴담 10문 10답'을 발표하였다. "이런 주장을 형사처벌하겠다"는 암시를 질게 드리운 이 문답표에는 PD수첩 재판에서 최근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서술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학적 진실성과 무관하게, 정부가 특정한 서술들에 대해 '사실'이라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적시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정부의 의견과 다른 서술이 곧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10문 10답에 위배된 서술로 인해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지만, 대대적인 '괴담 수사' 끝에 "5월 17일 동맹휴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청소년이 형사기소되었다. 그는 올해 9월에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동맹휴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3년 간 그가 겪은 고초도 적지 않다. 전 국민이 그의 고초를 지켜보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희박하면' 어째서 불법인지,

광우병에 대한 나의 소박한 의구심을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해선 안 되는 것인지, 수많은 '합리적' 의심들도 사라져 갔다. 결국 이 스펙터클한 수사 과정은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였다.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처벌받을 각오를 하라." 이것이 그들이 그들의 '허위사실'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수년 뒤의 무죄 판결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수사는 지금 이 시점에 발휘하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 '위축 효과'이다.

이러한 패턴은 "미네르바" 사건 때도 반복되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명분으로 구속되고 기소된 사건은 그 대중적인 충격만큼 위축 효과도 대중적이었다. 많은 논객들이 이즈음 하여 '절필' 선언을 하였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는 정부의 발표 내용과 다른 서술들은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해 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다른 원인 추정 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한 다음날, 친구에게 전쟁난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청소년을 검찰이 기소한 것도 명확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띄고 있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갈수록 상황은 나빠져 가고 있었다. 한술 더 떠 얼마 전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기관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한 게시물을 포털 등에서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사실상 검열이 판을 쳐 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정부의 이러한 행태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법리 이전의 문제는 정치성이다. 우리는 '허위의 통신'이라는 죄목 역시 '발명'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는 권력관계 하에서 규정되어 왔다. 다른 죄목 역시 얼마든지 발명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한민국 검찰은 놀라운 창의성을 발휘해오지 않았던가.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도 또 다른 방책이다. 발의된 법안대로라면 사이버 모욕죄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현행대로라면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기 전에는 '취박이'라는 별명을 처벌할 수 없지만, '사이버 모욕죄' 이후에는 대통령의 고소 없이도 '취박이'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

결국 싸움은 우리의 몫으로 남는다. 인터넷을 바라보는 우리의 언어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촛불 시위 당시 여성 사망설, 여성 강간설, 전경 이탈설 등 사실이 아닌 루머가 인터넷을 떠돌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말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만, 대체로 말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다. 심리학자 니콜라스 디폰조와 프라산트 보르디아는 소문을 '어떤 집단이 모호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상황을 설명하려는 집단적인 노력'이라고 설명하였다(위키피디아). 심리학자 G. W. 알포트와 L. 포스트만은 소문의 강도는 그 내용의 중요성(importance)과 불확실성(ambiguity)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전쟁, 공황, 재해, 정치적 혼란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사람들은 때때로 강한 불만이나 불안을 느끼기 쉽고, 급변하는 사태에 대비할 확실한 정보가 부족하므로 이와 같은 유언비어에 영향을 받게 된다(브리태니커 백과

사건). 당시 그런 루머가 인터넷에 떠돌았던 이유는, 5월 말과 6월 초까지 계속된 경찰의 무지막지한 진압 때문이다. 대개의 시민들은 처음 경험하는 아비규환 속에서 살인과 강간이 일어났을 법 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아무런 죄도 없는 비무장 시민들을, 바로 그들이 세금을 내어 먹여 온 전경 부대가 아무런 동요 없이 잔혹하게 공격한다고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은 나쁘다. 개인을 사회에서 매장하는 유언비어는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명예훼손' 법리로 충분히 의율되어 왔다. 무엇보다 시국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했던 프랭크 라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의견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단지 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도 기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허위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언론이 금융기관들을 조사하고 비판하는 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면 세계금융위기가 완화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정부에 이 법률 조항의 삭제를 권고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이 긴급조치 1호의 유언비어죄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도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일 것이다.

대중사회에서 우리의 삶은 수많은 허위사실과 루머 투성이이다. 오늘도 증권시장에는 수많은 루머가 떠돈다. 루머를 잠재우는 방법은 해명이다.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될 일이다. 그 해명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불신이 깊기 때문이다. 투명하지도 민주적이지도 않은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정부의 해명보다 루머를 더 믿는다. 따라서 인터넷의 루머에 대응하는 우리의 방안은 더 투명하고 더 민주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인터넷에 대한 싸움도 결국 뭉 없는 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싸움이다.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입법은 필요 없다. 폐지만이 답이다.

\* 이 글은 2010.12.30. 미디어스와 참세상에 기고한 글입니다

## 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활동가)

"현재 저작권과 관련한 체제는 정보로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상호간의 소통 그리고 문화적 교류까지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중략)...저작권 소유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대개 예술가나 작가가 아닌 경우가 많죠. 그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로 대기업 등으로 창작자의 이름을 무기로 삼아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중략)...제 생각에는 저작권이 창작자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오히려 가장 좋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sup>32</sup>

지난 10월 18일 한국을 방한한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 앤더스도터 (Amelia Andersdotter)의 주장이다. 미국에서 P2P 서비스인 냅스터(Napster)와 그록스터(Grokster)의 연이은 패소와 폐쇄, 선진국을 중심으로 비공개적으로 협상이 진행중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sup>33</sup> 등 갈수록 저작권이 강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면, '저작권은 이미 죽었다'는 그녀의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냅스터의 등장으로 디지털 저작권 논쟁이 촉발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대립과 갈등은 저작권의 적절한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가, 아니면 해적당의 주장과 같이, 저작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 혹은 폐지까지 요구하는 것인가?

---

32 고대강연 정리?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http://pirateparty.kr/blog/?p=225>

33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는 위조 상품(상표 침해품)과 저작권 침해품이 국제적으로 대량 유통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제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권 집행의 강화를 위해 일부 국가들이 비민주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http://ipleft.or.kr/node/2616> 참고)

## 저작권은 문화, 지식에 대한 '통제권'이다

새로운 복제기술이나 미디어의 출현이 기존 저작권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금은 저작권의 강력한 수호자인 음반사 역시 처음 등장할 때는 저작권자로부터 '해적'이라 비난받았으며, 케이블 TV 방송국도 기존 공중파 방송을 해적질하였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의 등장이 지식과 문화의 생산·유통·향유의 과정에 미친, 혹은 잠재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최근 '가디언'지는 BBC의 라디오와 TV 프로그램 아카이브에 공중이 접근하도록 하는 데에 저작권이 걸림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sup>34</sup>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위해 800명의 상근 직원이 3년 동안 필요할 정도로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법을 조금 바꾸면, 이러한 행정 비용의 낭비를 해결할 수 있다. 영국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국내 도서관들도 90년대 말부터 '디지털 도서관'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안타깝게도 원격 열람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원격 열람을 할 수 없는 '디지털' 도서관이라니!) 심지어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경우에도 허락받은 부수 이상 동시에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원격 열람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 책이 1권밖에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출판계의 반발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우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절판된 도서나 비영리적 논문 등까지 원격 열람이 제한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소비자(이용자)가 지식, 문화의 배포자, 나아가 생산자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해본 사람치고, 소위 '해적질'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당연히 기존에 저작물 유통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문화유통 자본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일련의 저작권 강화 경향은 자신의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유통 자본의 반격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역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상호 소통을 제약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6월, 딸아이가 손담비의 '미쳤어' 음악에 맞춰 울동을 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를 요구당한 사례가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다행히 1심 법원은 이를 공정이용으로 인정했고, 피고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현재 항소한 상태이다. 그러나 게시물 삭제에 대해 용감하게(?) 소송을 제기한 이 블로거와 달리, 권리자단체의 문지마 삭제 요구에 울며겨자먹기로 삭제당한 글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황당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KBS의 인기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팬 카페에 게시된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해 KBS가 삭제 요구를 한 바

---

34 <http://www.guardian.co.uk/law/2010/nov/25/bbc-archive-online-access-law?cat=law&type=article>

있다. 2010년 3월부터는 SBS의 요구로 방송프로그램 캡처화면이 포함된 블로그 포스팅이 사라졌다.

## 문화는 소비가 아니라 표현과 소통이다.

이것들은 저작권이 '남용'되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니라, 우리 누구나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청소년들의 비영리 라디오 방송, 사회단체들의 뉴스 아카이브 서비스, 재기발랄한 네티즌의 패러디 동영상, 전문가 뺨치는 문화 비평 블로거 등 시민들의 문화적인 표현과 상호 소통은 공개된 저작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마도 친구와 드라마에 대한 수다를 떨기 위해 방송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황당한 일일 것이다. 온라인이라고 달라질까? 과거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은 용산 전자상가의 불법CD나 길거리의 불법 음악테이프와 같이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규제 대상이 '모든' 시민들의, '비영리적 표현이나 상호 소통'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여러 유료 음악 서비스의 하나가 되었지만, 2000년대 초반 '소리바다'는 (사실상 당시 인터넷 이용자 전체라고 할 수 있는) 2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소리바다는 단지 음반 구매 비용을 아끼려는 이기적인 소비자들의 해적질을 도와주는 도구였을 뿐일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그것은 시장성이 없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오래된 음악,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해외 음악, 그리고 인디 음악 등을 접할 수 있는 음악의 보고(寶庫)였으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음악에 대해 나누는 커뮤니티였다. 비록 소리바다를 통해 유통되는 음악의 주류가 당시의 히트 음반이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문화유통 자본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문화 상품'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소비'해 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주어진 틀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화유통 자본은 시장성이 없으면 판매하지 않지만, 라틴 음악을 듣고 싶은 사람도 있고 인도 영화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욕구를 쉽게,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충족시켜줄 수 있는 기술과 서비스가 존재한다. 나아가 사람들은 스스로 만지고 싶어 한다. 영화 '스타워즈'의 편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신만의 편집본을 만들 수 있다. 마음에 드는 음악과 함께 라디오 방송을 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음악을 창작할 수도 있다. 단지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비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진정한 문화 아니던가? 이런 의미에서 현재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을 '정보민주주의'의 문제로 이해하는 해적당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 저작권은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인가?

최근 일인 밴드인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이진원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새삼 음원 수익의 불공정한 배분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불법복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음악 시장의 규모는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음반 시장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디지털 음악시장의 증가세가 그것을 대체하고 있을 뿐이다.<sup>35</sup> 그러나 실제 창작자인 작곡가나 실연자에게 가는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 멜론, 엠넷 등 음원 사이트나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가 수익의 50%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실제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애플 아이튠스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수익이 70%라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보다는 상황이 나은 것 같지만, 기존의 음악 시장이 대부분의 창작자에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대안적 수익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미국의 음악 서비스 업체인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고 이진원씨

매그나튠(magnatune.com)<sup>36</sup>의 설립자는 현재의 음악 산업의 구조에 대해, 라디오는 팝이나 락 등 주요 장르만 다루고 있어 지루하고, CD는 비싼 반면에 창작자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금방 절판이 되고, 음반사는 지나치게 오래 동안 창작자를 법적 계약으로 구속시켜 놓는다고 비판하고 있다.<sup>37</sup>

이러한 상황이 음악 산업만의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문화 산업에서 실제 창작자들은 유통 자본에 종속된 소규모 창작자이거나 고용된 문화 노동자들이다. 일부 스타 창작자들은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는 반면, 대부분의 소규모 창작자나 노동자들은 적절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문화 시장이 세계화될수록 이와 같은 승자독식의 구조는 심화된다. 이런 맥락에서 문화 자본의 세계화와 소수 거대 문화 자본의 시장 장악, 창작자에게 불리한 수익구조, 저작권의 세계화, 문화적 다양성

35 2007년 디지털 음악시장은 약 3700억 원, 음반 시장은 600~700억 규모라고 한다. 2001년에는 음반시장 규모가 약 3730억 원이었고 디지털 음원시장은 911억 원이었다. (한겨레21, 한국 음악시장을 죽이는 자들, <http://www.hani.co.kr/section-021153000/2007/12/021153000200712200690012.html>)

36 매그나튠은 양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무료로 오픈하고, 유료 가입자에게는 무제한 다운로드를 허용하며, 창작자와 직접 계약하여 수익의 50%를 제공한다. 매그나튠의 음악은 모두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채택하여, 비영리적 이용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37 <http://magnatune.com/info/why>

의 훼손 등이 동떨어진 문제는 아닐 것이다.

물론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사업 모델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한 산업 구조에 종속된 문화 창작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저작권 폐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제약하는 한편, 대다수 창작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가 아닐까.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7호에 실린 글입니다.

## 댓글 알바, 혹은 기름땀 짜는 디지털노동

조동원 (미디어운동/문화 연구)

‘댓글 알바’라는 말을 처음 접한 건 2008년 촛불시위 때였다. 한나라당이나 정부기관들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친정부적인 댓글을 올리는 것을 두고 이를 비판하는 네티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런데 이는 우리만의 일이 아닌 모양이다. 남한을 상대로 한 북한 통일전선사업부의 ‘인터넷 댓글팀’을 비롯해 미국의 ‘인조 풀뿌리’(Astroturfing), 중국의 ‘50원당’(五手黨), 러시아의 ‘웹여단’(Веб-бригады)과 같은 것들이 있다. 또한 ‘댓글 알바’는 정치적 여론 조작뿐만 아니라 제휴 마케팅이나 (온라인의) 입소문 마케팅 차원의 상업적 인터넷문화에서 더욱 성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한 일간지에 “인터넷 품평 ‘알바’, 댓글 하나에 1000원”(한겨레 2010년 2월 10일자)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질문과 댓글을 동시에 달아주고 수백 만 원대의 홍보비를 받는 ‘바이럴[viral] 마케팅’ 전문 업체”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기사는 거짓 홍보나 정보를 통한 소통의 왜곡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비난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 그 댓글 알바 일을 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스팸방지 문자입력 ‘캡차’, 문서 디지털화에도 기여하는 ‘리캡차’

우리는 새로 전자우편 계정을 만들거나 어떤 웹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할 때 혹은 댓글을 쓰려고 할 때, 휘어지거나 찌그러진 문자나 숫자를 입력하라는 관문을 종종 통과한다. 내가 스팸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는 일인데, 적어도 내가 스팸을 자동 대량 발송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분 좋은 일도 아니고 귀찮기도 하지만, 우리는 스팸 방지를 위해 이를 자연스러운 절

차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스팸방지 문자입력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으로 ‘캡차’(CAPTCHA)가 있다. 2000년에 야후닷컴의 요청으로 미국 카네기멜론대의 루이스 폰 안(Luis von Ahn)과 그의 연구팀이 개발했다. 그리고 이 팀은 2007년에 한층 기능이 강화된 ‘리캡차’(ReCAPTCHA)를 선보였다. ‘리캡차’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기능이 추가되었고, 무엇보다도 문서 디지털화 작업과 결합되었다. 위의 그림이 보여주듯이, ‘리캡차’는 두 단어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 중의 하나(위 그림에서는 morning)는 스캔한 옛 문서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 단어들은 밑줄이 쳐졌거나 휘갈겨 쓰였거나 흐릿해서 컴퓨터(스캐너)가 자동 인식하지 못해 디지털화가 안 된 것들이다. 이 때 ‘리캡차’는 스팸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알아보기 어렵더라도 최대한 정확하게 그 단어를 입력하려는 사람들의 지력과 노력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자동 인식되지 못한 저와 같은 단어들의 디지털화를 돕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기능의 경우도 옛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자동으로 소리 인식이 되지 못한 부분이 활용된다.



리캡차 웹사이트의 첫 화면에 있는 리캡차의 원리 설명 그림

이런 방법으로 ‘리캡차’는 1851년 처음 발행되기 시작한 뉴욕타임즈 전체 인쇄본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기여하고 있다. 수많은 웹사이트들에 ‘리캡차’가 설치되어 왔는데, 2007년 한 해 동안 6억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적어도 한번 ‘리캡차’를 거쳤고, 2009월 현재 하루 평균 3천 만 개의 ‘리캡차’가 해결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첫 발행년부터 1980년까지의 뉴욕타임즈 인쇄본이 디지털화되었다. 한 사람으로 보면 아주 짧은 순간의 별 것도 아닌 문자 입력에 불과하지만 이를 모두 모으니 엄청난 일거리를 해결하게 된 것이다. ‘리캡차’를 설치한 웹사이트에서 스팸을 막기 위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스팸 로봇 같은 자동 프로그램은 인식할 수 없는) 문자를 입력하도록 요청하는데, 그 문자 입력이 마침 아날로그 문서들의 디지털화를 돕는 일이라면, 그래서 “스팸도 막고, [전자] 책도 읽는”데 보탬이 된다면 잠시의 수고쯤이야 오히려 즐거운 놀이일 수 있다. 그런데 ‘캡차’ 혹은 ‘리캡차’ 때문에 대량 홍보의 길이 막힌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들에게 고용된 문자입력 노동자들에게는 어떨까?

## ‘기름땀 짜는 캡차공장’의 노동

‘캡차’라는 스팸 방지와 문서 디지털화를 돕는 기술이 개발되고 널리 활용되자 그에 굴하지 않고 대량의 광고 정보를 발송하려는 업체들은 ‘캡차’를 아예 대량으로 그러나 수동으로 풀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이른바 ‘캡차공장’이 그것이다. 저임금 노동이 존재하는 나라들에서 이런 작업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한다. 평균 1분당 6개, 많게는 12개씩 ‘캡차’ 문자를 입력해 해결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 접속이 안 되지만 인도에 있는 ‘캡차깨기닷컴’(DeCaptcha.com)의 경우 1천 개의 ‘캡차’를 푸는데 2달러를 준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하게 푼 것만 따져서 그렇다. ‘그림이윤닷컴’(pixprofit.com)은 1천 개당 1달러다.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 웹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들은 스팸을 보내기 위해 이 일을 한다고 드러내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림이윤닷컴’의 소개 페이지를 보면 이 일은 책이나 글을 디지털화하고 특히 시청각장애인이 ‘캡차’ 때문에 인터넷 접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돕기 위해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있다.



그림이윤닷컴 웹사이트의 첫 화면 이미지

‘캡차공장’은 인도 말고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중국, 브라질,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번호 1개 당 1원씩 하는 한국의 개인정보 산업과 함께 또 하나의 네트워크 지하경제를 이루고 있다.

## 집단지성의 인력시장과 노동현장

이러한 종류의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들과 일하려는 사람들을 중매하는 노동력 시장도 곳곳에 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닷컴의 ‘터키자동인형닷컴’(Mechanical Turk, mturk.com)은 2006년에 문을 연 온라인 인력 시장이다. 예를 들어 특정한 사진들에 제목을 다는 일거리도 있고, 특정한 업종의 사람들과 친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홍보 이메일을 보내는 일을 부탁하는 일도 있다. 아주 단순한 것들은 0.01~2 달러를 받는다. 홍보 이메일은 하나당 1달러다. 자기 웹사이트에 올라온 스팸을 모두 지우는 수작업은 시간당 3달러다. 국내에도 온라인 마케팅 업체들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런 식의 잘

게 쪼개진 단순 지적 노동력들이 매매되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지경에 이르렀다. 더 나아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원격 노동이 가능하다. 2009년에 ‘모바일 외주생산 사업’이라는 것을 처음 벌인 미국의 ‘문자이글닷컴’(txteagle.com)의 경우, 저임금 노동력이 편재하는 나라들의 가난한 사람들이 소액을 받으면서 휴대전화로 실행할 수 있는 단순한 일거리(소프트웨어 현지 언어화를 위한 단어 번역 등)를 창출하고 있다.

또 다른 노동현장을 가보자. 2007년에 생겨 2만 5천 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전복하고 이득얻자닷컴’(SubvertandProfit.com)은 최근(2010년 4월 21일)에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유명하면 쏜다”(It Pays to be Popular on Facebook and Twitter)고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군중외주 생산’(crowdsourcing) 노동자로 봐야할 이 회원들은 그들이 페이스북에 가지고 있는 친구 숫자, 트위터의 추적자(follower) 숫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미국에서 접속한 이용자일 때 50명 이하의 친구나 추적자가 있다면 페이스북 벽에 홍보글을 한 번 올리거나 트위터에 관련 내용으로 트윗을 한 번 하는 것으로 0.25 달러를 받지만, 같은 홍보 일이라도 350명 이상의 친구가 있을 때라면 그 두 배 격인 0.55 달러를 벌게 된다. 처음 보는 아이디의 사람들로부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친구요청이 부쩍 많아지는 이유가 선거철이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이제 우리의 (온라인) 사회적 관계 그 자체가 돈이 되고 있다. 이미 인맥이나 네트워크라는 일상용어에 내재된 금권적 관계가 사회적 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도토리니 콩이니 하는 가상화폐를 거칠 필요도 없이) 곧바로 현금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디지털과 노동과 인권과 ...

인권의 차원에서 댓글 알바와 같은 디지털노동은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Zittrain 2009.12.8). 하나는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인권적인 노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 계약이 주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데 노동법상의 노동자 인권 보호 조항들이 지켜질 리 없다. 예를 들어 아동노동의 금지는 무시될 수 있다. 노동과정(글올리기, 문자입력하기, 온갖 클릭 등)은 원격 모니터링 형태로 감시되고 있고, 댓글과 문자입력 및 추천과 그 모든 일들이 특정한 회사에 고용된 노동 행위라는 사실은 ‘영업비밀’로 지켜져야 한다. 지트레인(Zittrain)이 지적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누구를 위해 왜 일하는지 알지 못한 채 노동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는 독약이나 폭탄에 사용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합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독재 체제의 지도자로부터 전 국민의 얼굴 사진과 시위대를 촬영한 사진을 대조하는 작업을 맡을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노동이 이미 2000년대 초중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지트레인은 이것들이 최근의 금융 위기 이후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말한다. 서두에 언급한 댓글 알바 기사가 보도되었던 올해 2월, “반나절’ 초단시간 근로자 100만 명 육박”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초단시간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어떤 노동이냐의 문제가 중요할텐데 이러한 반인권적 불안정 디지털 노동이 점차 많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떼내기 힘든 인터넷은 놀이터이지만 동시에 기름땀 짜내는 공장이자 인력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digitallabor.org 참조). 스팸방지를 위한 ‘캡차’ 풀기 놀이는 어딘가에서는 고역의 노동이기도 하니 말이다.

## 참고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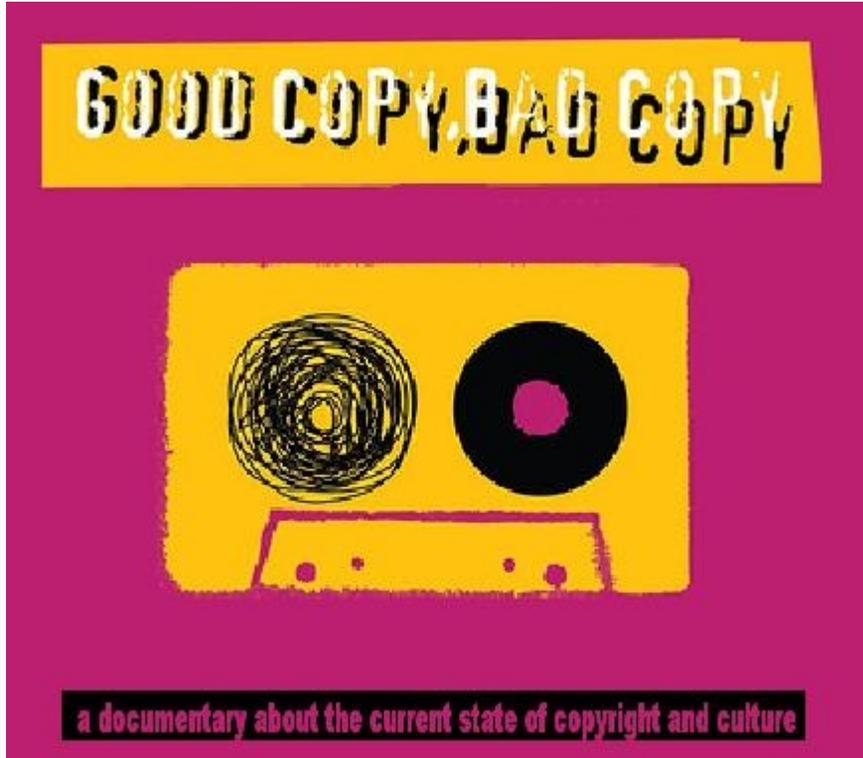
- 1stgood, 2008.8.13, "로봇방지 지그재그 이미지 - 캡차(CAPTCHA) ," The First is Good
- 한겨레, 2010.2.10, "인터넷 품평 '알바', 댓글 하나에 1000원"
- Buytaert, Dries, 2008.12.5, "Manual spam services," buytaert.net
- Connor, Alan, 2006.9.13, "Are you Google's gopher?," BBC NEWS
-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 digitallabor.org
- jhrogue, 2007.5.25, "CAPTCHA를 능가하는 reCAPTCHA," 컴퓨터 vs 책
- Israel, David K., 2009.12.3, "The Underground CAPTCHA Industry," mental\_floss Blog
- Olsen, Stefanie, 2008.7.16, "ReCaptcha: Reusing your 'wasted' time online," CNET News
- PRWeb, 2010.4.21, "It Pays to be Popular on Facebook and Twitter Campaign Launched by Subvert and Profit," prweb.com
- von Ahn, Luis & Will Cathcart, 2009.9.16, "Teaching computers to read: Google acquires reCAPTCHA," Official Google Blog
- von Ahn, Luis, 2006.6.26, "Human Computation," Google TechTalks (video)
- Wikipedia, "ReCAPTCHA," <http://en.wikipedia.org/wiki/ReCAPTCHA>
- Zittrain, Jonathan, 2009.12.8, "Work the New Digital Sweatshops," Newsweek.com

\* 인권오름 204호에 실린 글입니다.

## **Section 011. 문화는 공유를 타고**

## 저작권 문화에 대한 세계 여행 가이드

### 좋은복제 나쁜복제 (GOOD COPY BAD COPY)



이 영화는 그 부제처럼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최근 상황'을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다(덴마크, 2007). 독립 영화치고는 상당한 제작비가 든 작품인데, 덴마크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스웨덴,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의 세계 각지를 돌며 다양한 저작권 문화 상황을 보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새로운 창작과 유통 방식들,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강화, 저작권 침해와 해적질에 대한 문화산업의 입장과 대응, 저작권체제 개혁운동과 자유문화의 부상, 나이지리아의 날리우드나 브라질의 테크노 브레가와 같은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은(!) (주변부) 문화산업의 역동이 모두 담겨있다.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지구적인 저작권 전쟁이라 부를만하다. 이 영화와 함께 전 세계의 저작권 문화 전장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이 좋은 복제이고 무엇이 나쁜 복제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상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 이런 낯섦과 전복이 여행과 영화의 묘미 아닌가.

더 나아가 이 영화가 진정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복제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식의 도덕철학적 접근이 갖는 한계가 무엇인가가 아닐까 싶다. 1990년대 후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재벌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듯이, 세계적인 저작권법 개혁 운동가인 로렌스 레식이 시장자유주의자이듯이, 웹2.0의 자유, 개방, 공유, 협력이 인터넷 대기업들의 주류 사업모델이듯이, 그리고 디지털 해적질 혹은 불법복제가 궁극적으로는 문화산업의 독점을 강화하고 있듯이, 지적재산(IP)에 반대하는 정보공유의 도덕철학이 갖는 한계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당장 이 영화와의 저작권 문화 여행을 떠나야겠다면, 그 웹사이트 ([goodcopybadcopy.net](http://goodcopybadcopy.net))에서 영어 자막이 있는 것으로 바로 보거나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하지만 (2010년) 5월의 인권영화제에서 웃고 떠들며 함께 영화 여행을 떠나볼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준비되고 있다!

조동원 ([dongwon@riseup.net](mailto:dongwon@riseup.net))

## '가자 지구'의 그래피티



이스라엘이 세운 팔레스타인 고립장벽에 그래피티 중인 방시.

거리낙서 예술(활동)가 방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을 던지는 시위대, 키스하는 영국 경찰 등 한국 유저들의 웹사이트에서도 종종 볼 수 있었던 방시의 작품을 담은 책이 한국에도 작년에 나왔죠. 자본주의를 조롱하는 그의 행위들은 상품화된 지 이미 오래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세우

는 '고립장벽'에 그린 그의 그림들은 정말 좋다고나 할까...팔레스타인에서는 자살폭탄테러(!) 공격만 해대는 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인,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완전 봉쇄된 '가자 지구'의 그래피티를 감상해 보세요:)

가자의 그래피티 : <http://www.life.com/search/?q0=gaza%20graffiti>

팔레스타인 관련 방시의 그래피티 모음 : <http://pal.or.kr/xe/84071>

## 홍대 앞 작은 용산, 두리반



홍대...? 땅값 비싸고 길에서 술냄새 나는 무서운 동네 아닌가?

헉 이런 늑다리 꼰대... 놀 줄 모르는 인간은 밥맛이야.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그곳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라는 겁니다. 지켜줘야죠.

투기자본과 공권력이 결탁했는데 그 앞에서 노래로 저항한다니 멋지잖아.



그런데 점거한다고 순순히 물러날지... 건설사 얹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음.

평화시위가 머지않아 관심없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줄 거예요.



확 해킹해버리면 어때.





"두리반 농성은 대한민국 철거 싸움에서 특이하고도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중이다. 재개발 지구 안에서 오로지 한 집만 남아 싸우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이한 일이고-그럼에도 안중녀 사장님은 대원을 두 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전철연 산하 동교동세입자철거투쟁위원회 위원장이시다. 다음으로는 철거 현장을 온갖 예술인들이 모여들어 난장을 펼치는 문화 거점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 프레시안, "홍대 앞 '작은 용산'...기적의 현장을 보러 오세요!"

프레시안, "홍대 앞 '작은 용산'...기적의 현장을 보러 오세요!"<sup>38</sup>

다음 카페 - "작은용산 두리반" : <http://cafe.daum.net/duriban>

---

38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03092003&Section=0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503092003&Section=03)

# 엔하위키

오! 덕이 있는 자들이 뭉쳤으니, 엔젤하이로(<http://www.angelhalo.org>)의 엔하위키이다.

위키(wiki)를 찬양하는 여러 말들. 집단지성, 참여, 열림. 하지만 한국에서의 위키는 커뮤니티 기능보다는 기업에 의한 백과사전식 지식축적DB가 되거나 소수 전문가 집단

의 논쟁 장소로 활동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위키가 만약 "내가 올리는 잡스럽고 별 볼일 없는 이야기가 뭉쳐 재미있는 글타래가 되는 것"이라면? 가령,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에서 6.2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273버스부터 인터넷 신조어 정보까지. 잡다하고 상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즐거운 이야기꺼리들, 문서 내용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수정하고 그 결과가 즉시 반영되는 공간이 엔젤하이로다.

2007년 3월 1일 시작한 엔하위키는 그해 12월이 되어서 5000문서를 달성하지만, 그 이후 입소문이 퍼지고 동네방네 온갖 네티즌들이 몰려들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 2010년 6월 현재 76000항목의 문서가 저장되어 있다. 국내에 거의 유일한 서브컬처 사전기능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명멸하는 자료(짤방, 각종 인터넷 사건사고 등)들이 누적되어 있다. 규모로는 국내 4위, 웹페이지 생성 속도로는 국내 최고이다. 오픈토리가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회원제의 폐쇄형 위키임을 감안한다면, 순수 유저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국내 3위 위키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위키들이 까다로운 편집, 느린 속도, 신규 편집자의 진입장벽이 높았다면 엔하위키는 널널하고, 자유롭고, 광고가 없다(!). 편집장벽이 낮고 문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반달(vandalism)행위가 아니라면, 당신도 언제나 문서를 읽다가 한 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결코 착각하지 마라. 네가 위키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위키가 널 작성하는 거다.

## 목차 ▲

- 1 위키 안내사항
- 2 주요 페이지 링크
  - 2.1 오덕 관련 정보
    - 2.1.1 작품 관련 정보
    - 2.1.2 인물 관련 정보
  - 2.2 일반지식
    - 2.2.1 일반사회 관련 정보
  - 2.3 사전
  - 2.4 일반 취미 관련 정보
  - 2.5 기타 등등
  - 2.6 슈퍼로봇대전 관련 정보

엔하위키 페이지

##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

"인디시트콤. 인디도 대충 뭘 말인지 알겠고, 시트콤도 맨 날 보는건데 이 두 단어의 낯선 조합물이 인터넷에서 인기폭풍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디시트콤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입니다.

<http://indiesitcom.com>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나 전혀 본 적 없음이 거의 확실한 배우들이 나와 웃기지도 않은데 곰곰이 회상하다 보면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연기를 보여주고, 강렬한 농담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농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말 인디시트콤이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일도 사랑도 제대로 되지 않는 매니저의 소소하고 은은하게 강렬한 일상이 펼쳐지지만, 감독의 뜻대로 한국 사회의 모순이 알려지는지는 =\_=... 음. 윤성호 감독은 이 시트콤을 마구마구 퍼 가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니 마음껏 퍼 가시고 열렬하게 공유하셔도 됩니다. 더욱이 지난 7월 26일 시즌1(총12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를 보지 못하셨던 분이 라면 이 여름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함께 몰아보시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꼭 '자매품(총4편)'도 놓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시즌2가 나온다는데 시즌2 역시도 공유의 형식을 타고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즐기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 **Section 100. 이달의 복킹**

# 인터넷 권력전쟁

『인터넷 권력전쟁 : 사이버 세계를 조종하는』

(원제 : Who Controls the Internet? : Illusion of a Borderless World)

책 골드스미스, 팀우 저/송연석 역, NEWRU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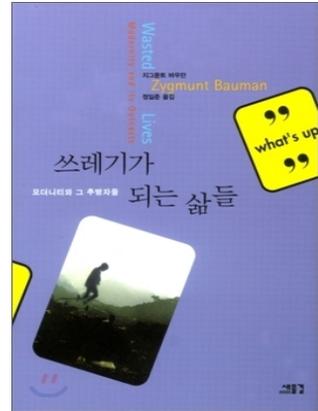


전 세계 인구 약 68억 명 중 10억 명, 우리나라 인구 약 5000만 명 중 3400만 명 가량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66%가 인터넷의 바다를 향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를 규제하기 위해 각 국에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법률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의 초창기 모습은 어떠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되어 지금의 인터넷 체계가 만들어졌을까요? 초창기 인터넷 기술자들은 사이버 공간이 민족국가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계를 새로운 탈영토화 체계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 믿음들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에 대해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 아무리 획기적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리적 구분과 정부의 강제력이 갖는 근본적인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인터넷이 갈라지면서 언어, 요구의 차이, 각 국의 기술발전의 속도, 국가별로 이뤄지는 법 집행 등의 문제로 인터넷에도 국경이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 국경 있는 인터넷에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일 것입니다. 저자는 온라인상의 규제들이 왜 만들어졌고 정부는 콘텐츠를 어떻게 규제를 하며 그로 인해 얻는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인터넷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영토를 기반으로 한 정부의 통제가 갖는 의미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 쓰레기가 되는 삶들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지그문트 바우만 저/정일준 역, 새물결, 2008



정보인권이 정보주체에게 외면 받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CCTV를 적극 환영하는데 외부에서 그것을 감시라고 외치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패킷 감청이 사생활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규탄할 때, 정보주체가 맞춤 광고를 위해 선뜻 감청에 '동의'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감시'는 정말 억압이기만 한 것일까요? 시민들은 왜 감시를 환영하고 그에 참여하는 것일까요? 푸코라는 학자는 일찍이 파놉티콘(원형감옥)을 연구하며 감시 문제를 고찰하였습니다. 죄수(주체)는 간수(권력)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는 과정에서 규율을 내면화하고 훈육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빅브라더론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감시사회에서 CCTV와 데이터베이스는 너무나도 은밀하게 작동하여 대부분의 시민들은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과거와 가장 달라진 점은 감시의 목표가 '훈육'이 아니라 '배제'라는 점에 있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배제'를 위해 작동하는 감시를 '뉴 빅브라더'라고 부릅니다. 과거에도 감옥과 정신병원은 격리의 공간이었지만, 격리된 '비정상'은 '정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임시적 상태였습니다. 산업사회에서는 범죄자나 노숙인 역시 산업 예비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행처럼 쓰이고 있는 '잉여'라는 개념은 예전처럼 '정상'으로의 복귀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잉여로, 인간쓰레기로 취급합니다. 이때 전자감시의 목표는 '생산적인' 보통의 시민들과 그들의 재산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지키는 데 있습니다. 감시원들이 CCTV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유는 '쓰레기'들을 구분하고, 정의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공간에서 쫓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의 빅브라더는 사람들을 규율에 '포함'시키기 위해 통제하였습니다. 새로운 빅브라더의 관심은 '배제'입니다. 쓰레기들은 쓰레기장에만 모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감옥은 수용자를 훈육함으로써 공동체로 재통합할 수 있다는 교정의 이상을 더 이상 꿈꾸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회적 불량품을 사회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창고'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의 DNA를 채취하여 평생 국가가 철두철미하게 관리하는 것이 용납되고, 보통 시민들은 안도하는 심정으로 DNA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을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을 짝짝 채우는 형벌 국가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게임에 참여

할 수 없는 무능력이 갈수록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소식은 오늘날 오래된 빅브라더와 새로운 빅브라더가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빅브라더는 사회 감옥을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크게 갖추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빅브라더는 감옥을 위한 담장을 치고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공고화하는 데 철두철미합니다. 불안하기만 한 시대에 시민들은 담장에서 위안을 얻기 때문에, 빅브라더를 반깁니다.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부하지만, 역시 희망은 연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이 두 빅브라더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뿐인가, 포함/배제의 게임이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유일한 방식인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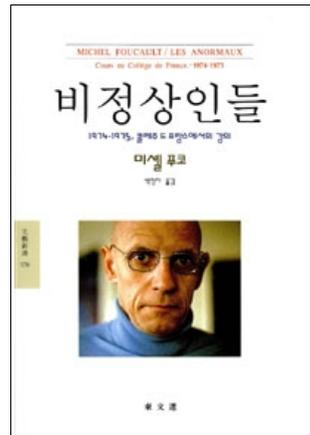
## 비정상인들

『비정상인들: 1974~1975,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의 강의』

미셸 푸코 저, 박정자 역, 동문선, 2001

권력은 그로테스크하다. 네로에서 히틀러에 이르는 추악한 권력, 그리고 오늘날의 관료제에 이르기까지, 권력은 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처럼 너털거리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권력이란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운데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펼쳐짐들 가운데서 있지도 않은 시원을 찾아야 하고, 진실에의 의지를 가지고 진실을 생산해내야 하기 때문에, 권력은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저 당장의 질문을 모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료제라는 종이괴물, 그 허둥거리는 자기합리화는 얼마나 웃긴가? TV에서 토론장에서, 또 청문회에서 언제나 땀을 뻘뻘 흘리며 똑같은 말-예컨대, 미비한 점은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관리의 모습이란 언제나 웃기지 않은가? 그는 "천박하고 형편없으며, 아둔하고 경박하며, 우스꽝스럽고 너털거리고, 초라하고 무기력"하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이 웃긴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그것은 권력이기 때문에, 진실의 생산자이기 때문에, 웃긴 것이다.

<비정상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계보들을 추적한다. 또 '사이코패스'라는 진실을 생산함으로써, 권력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1975년 프랑스에서 말해졌던 푸코의 언설이, 비록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을 진단해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임에는 분명하다. 그렇다면 범죄인을 전시함으로써 권력의 그물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또 거기서 다시 범죄가 재생산되는 지금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하는 우리의 운동은 <비정상인들>에서 하나의 출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사이방가르드

『사이방가르드: 개입의 예술, 저항의 미디어』

이광석 지음, 안그라픽스,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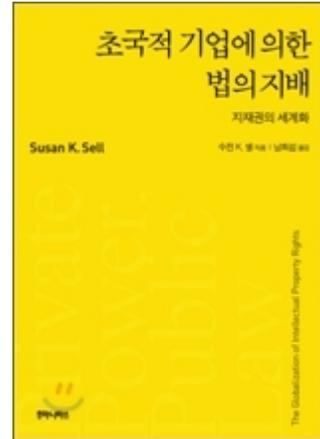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했던 월간 <네트워크>를 기억하시는 지? 당시 최장수 인기 연재꼭지 중의 하나인 '사이방가르드 문화체험'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사이방가르드 - 개입의 예술, 저항의 미디어> (이광석 지음, 안그라픽스, 2010). 저자가 만든 조어인 '사이방가르드'는 디지털 시대의 아방가르드 문화예술을 지칭한다. 저자

는 이 책에서 정치 퍼포먼스나 해프닝 영역, 그래피티나 삽화 등의 풍자예술 영역, 기술 공학을 활용한 전술미디어 영역, 유전공학이나 분자 생물학 등에 개입하는 정치예술 영역, 사이방가르드 이론생산 영역 등 6개 영역에서 현실 개입과 저항의 실천을 한 아방가르드적 행동주의의 사례 스물 일곱 개를 살피고 있다. (올해 초에 개봉한 다큐멘터리 <예스맨 프로젝트(The Yes Men Fix The World, 2009)>의 주인공들도 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 짐캐리 주연의 <예스맨> 아님) 그러나 이 책은 저자가 얘기하고 있다시피, 단지 예술에 대한 입문서가 아니다. 저자는 이 책에 소개된 "아방가르드 예술군의 사회 참여방식을 보면서, 현실의 야만에 반응하는 나름의 '싸움의 기술'을 터득하기를" 기대한다. 아쉽게도 이 책에서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이방가르드 행동주의의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투쟁 등에서 참여적인 예술가들과 미디어활동가들은 인터넷 라디오, 벽화, 패러디 영상 등 재기발랄하면서도 현실 고발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책이 한국 사회에서 사이방가르드적 문화 실천을 풍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초국적 기업에 의한 법의 지배: 지재권의 세계화』

수전 K.셀 지음, 남희섭 옮김, 후마니타스, 2009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은 국내 지재권 체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협정이다. WTO 가입국인 이상 트립스 협정의 내용을 특허법, 저작권법 등 국내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습게도 국내법은 트립스보다 지재권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할 수는 있어도 약화시킬 수는 없다. 한미 FTA나 한EU FTA의 지재권 관련 내용은 트립스를 기반으로 이보다 더욱 권리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어 트립스 플러스(TRIPs plus)라고 부른다.

그럼, WTO에 가입되어 있는 전 세계 각 국의 지재권 법을 강제하고 있는 트립스의 내용은 과연 공정할까? 그렇지 않다. WTO 트립스의 내용이 지재권 선진국에 유리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트립스와 같은 국제협정이 미국 등 선진국 국가의 압력과 초국적 기업의 로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은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트립스협정을 가능하게 했던 구조적인 요인과 함께,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제약사 등 초국적 기업이 트립스 제정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보여준다. 이 책의 원제는 <Private Power, Public Law> 이다. 즉, 사적 부문의 권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적인 법률을 어떻게 주무르고 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트립스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번역한 남희섭 변리사는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전 대표이자, 현재 진보네트워킹센터 운영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 Section 101.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 이종회 대표 인사말

올 해 설은 유난히 우울합니다. 구제역 때문에 1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손자손녀들을 집에도 오지 말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육식으로 인한 인간이 만든 재앙을 보게 됩니다. 4대강 파헤치고 콘크리트 가져다 부은 재앙은 이후에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더욱 섬뜩해지는 날들입니다.

용산범대위 집행위원장이라는 죄명 하나로 작년 4월 30일 보석으로 나와서 며칠 전에야 1심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라야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죄였는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워낙 무도한 정권이라 혹시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일에 집중하지를 못했는데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판결은 검찰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라 해도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개발 이윤과 투기라는 증기가 터져 일어난 참화가 용산참사였는데도, 최근까지도 내각의 장관들은 물론 하물며 대법관, 감사원장의 청문회에서 투기 한두 건은 기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하니 경찰의 폭력으로 불구덩이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리는 추모제마저 집시법과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중형을 받는 건 어찌면 당연하다 싶습니다. 이즈음에 표현의 자유를 외치는 것마저도 사치스럽다 싶고 1년의 수배와 4개월의 영어생활이 허무하기도 합니다.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네르바는 물론 천안함 사건 당시 문자 몇 통 날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던 사람들은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 정권에 반하는 행위나 표현을 하면 겁주고 잡아넣고 나중에 무죄가 되든 말든 그것은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대체입법을 거론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여전히 요원한 숙제입니다.

그나마 기대불 요량을 가졌던 국가인권위마저도 문을 걸어 잠근 마당에 믿을 구석이라곤 별로 없습니다. 이번 설은 금연, 금주를 결심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나를 담금질하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작년, 재작년 유난히 아스팔트 농사를 많이 지었던 우리 진보넷 식구들도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 튀니지, 이집트 민중투쟁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 법원에서도 인정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성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월 7일 서울고등법원은 소위 '쓰레기 시멘트' 게시물 삭제와 관련한 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최병성 목사 측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문제는 진보넷이 그간 꾸준히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조중동 광고지면 불매운동 게시물 삭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지원하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 의료단체도, 제주도단체도, 전자주민증을 반대합니다!



2월 들어 전자주민증에 반대한다는 각계의 의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 사협의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보건의료단체연합, 그리고 제주도단체 참여환경연대까지!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들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마다, 부동산을 갈 때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장소에서 '빹'하고 이동통신사의 리더기에 전자주민증을 확인받아야 할 것입니다.

거대전자 감시정부가 등장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논란 많은 전자주민증이, 우리 국회에서는 변변한 여론 수렴도 없이 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밀어붙이지요, 야당은 흐릿한 태도이니 어쩌면 좋아요. 그래도 문제의식 있는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마침내 승리하리라고 믿어요~

## 진보넷, 미국 Free Government Information에 컬럼 기고

Free Government Information (FGI)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자 중의 하나인 여신정님이 지난 2010년 진보넷을 방문하면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FGI의 홈페이지에는 매월 외부 블로거들의 글을 받는데, 2011년 2월에는 진보넷에서 기고하게 되었습니다.

총 3편의 글이 실릴 예정인데, 이용자들의 사적복제를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There is no so-called illegal download!), 지난 2010년 12월 28일 위헌 결정이 내려진 허위의 통신 조항(A Nation Punishes A Lie)이 실렸고, 조만간 전자주민증에 대한 컬럼이 실릴 예정입니다.

##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며 바쁜 기술팀!

요즘 독립네트워크는 무지 바빠요.. 신년 계획을 세우고 총회 승인까지 받았지만, 계속 회의하고 논쟁하고 논쟁에서 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언젠는 안 그랬나만은(?) 같이 일할 사람이 더 있었음 좋겠어요. 자원활동가도 더 구해서.. 블로그도 1차 개편 이후 추가 계획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러나 새로이 런칭해야 하는 사이트는 많고.

그리고 아랍에 혁명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는데 진보넷이 이에 대해 뭔가 해야 하는데.. 뭐 아마도 3월 중 독립네트워크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참여자를 모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트가 오픈 할 거예요. 계획대로라면 2월에 오픈했어야 하는데, 언제나 작업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마감을 넘기네요. 결국 논 것도 아닌데.. 뭐 이리 푸념조람. 다음엔 런칭과 새 사이트 기획 기타 재밌는 소식을 들고 올게요!

## 허위사실유포죄란 없다



지난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로 여당과 정부에서 대체입법을 위한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반(反)사회 인터넷 유언비어가 '면죄부'를 누리게 되었다며 '법치공백'을 막기 위한 '대안입법'이 절실하다고들 성화입니다. 미네르바와 같은 게시물,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해 정부 입장과 다른 게시물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앞으로 계속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목소리들에야말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 아니겠어요? 정부와 여당의 대체입법론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의견을 묵살하는 몰지각한 행위입니다. 진보넷은 '허위사실유포죄'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12일 긴급좌담회를 통해 피해자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았습니다.

## 억울한 DNA 채취

지난해 7월부터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이었지요. 하지만 이 법률은 DNA 채취 대상으로 성범죄 뿐 아니라 폭력행사, 절도를 아우르고 있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속피의자와 소년범의 DNA까지 채취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가시지 않아 왔습니다.

실제 이 법 시행 이후 몇몇 인권 활동가들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DNA를 채취당해 왔구요. 진보넷은 인권단체들과 함께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억울하게 DNA를 채취당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 오픈소스 포럼 세미나 개최

지난 1월 19일, 상암동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회의실에서 <오픈소스 포럼> 1차 모임이 열렸습니다. <오픈소스 포럼>은 국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성화를 위해 이에 관심있는 개인, 커뮤니티, 기관 등이 공동의 세미나를 진행해보자는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앞으로 매달 1회씩 5차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모임인 이날 40여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러한 모임에 목말라했던 분들이 많으셨던 듯합니다. 이날 모임에는 우분투 한국 사용자모임, JAVA 커뮤니티 등의 커뮤니티, 정보공유연대와 CC Korea와 같은 단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의 공개소프트웨어 역량플라자 등 공공기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첫 모임이기에 주로 각자 하는 일이나 관심 분야 등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다음 포럼부터는 공개 라이선스의 개념, 자유/오픈소스 커뮤니티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부의 정책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젠 [www.jinbo.net](http://www.jinbo.net)을 바꾸자

지난 몇달 동안 내부 기획회의를 통해 올 한해 진보넷 사이트 개편의 큰 열개가 그려졌습니다. 총회 사업계획서를 통해 회원분들과 공유할 예정인데요. 간략히 정리하면 올 한해 진보넷의 가장 큰 화두는 진보넷 메인 개편입니다. 속보와 단체소식 및 각 사회운동의 이슈들을 한눈에 잘 소개하고, 소셜네트워크와 연계성과 모바일 환경에 적응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진보블로그를 오픈소스 TextCube 기반으로 변경했던 것처럼, 올해도 진보넷 사이트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기조도 여전합니다. 진보넷 사이트를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하는 만큼, 진보넷 사이트 개편도 공개적인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진보넷 사이트가 개편되기 전까지 끄꿍 숨겨오다가 보통 째하고 개편하곤 했었는데요. 이제는 개편을 위한 기획 및 개발 과정까지 회원들과 공유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페이지를 2월중 오픈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 **Section 110. 회원 인터뷰**

## 진보넷의 새로운 인연, 영동님!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최근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신 영동님입니다. 지난 서대문구 인권/사회단체 송년의 밤에서, 진보넷에 간식 소시가 당첨되어 직접 오셔서 간식도 후원하시고 달력도 무려 6개나 사가셨는데요. 바로 그 날 회원가입까지 하셨답니다! 2010년 끝자락에 진보넷과 인연을 맺으신 영동님은 어떤 분일까요? 함께 보시죠!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전화기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거 같아서, 제 폰을 중심으로 저를 소개해 보자면요. ㅋ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음...대학을 10년;;; 다니는 동안 쌓인 선 후배들이구요. ㅋ 제가 가르쳐온 논술학원 학생들 번호가 그 다음이네요. 글구 comred로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 세번째로 많군요. 그 안에는 인권운동사랑방, 청년유니온, 민연련 등등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끄적이는 소설나부랭이 덕에 여러 문인들의 번호들도 저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 진보넷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가입하시게 되었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보는 적금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적금을 몇 군데 들고 있는데, 진보넷은 제가 거리에서 상상력을 키우기 시작하던 예전부터 온라인에서 진보의 무게중심이라 '투자 대비 수익성'도 좋을 거 같아서 저의 '관심상품'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있는 공간들에서의 활동에 집중하자는 생각에 그간 투자를 망설이다가 학교 졸업하고 여윳돈이 생기면서 진보넷 적금도 들기로 했지요. ^^ 물론 더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번에 서대문 인근 사회단체 연합 송년회 날에 제가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사람들과 갔었는데, 이벤트로 골라서 갔던 굴 속에서 '진보넷에 간식풀기' 쪽지가 걸려서 '아...어린취의 계시구나'란 생각에 더 미루지 말고 가입하기로 했죠.

### 진보넷 사무실 처음 오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앞서 말한 그 간식풀기 미션+진보달력 구입을 위해 진보넷 사무실을 갔었는데요, 주변을 압도하는 건물의 위용이나 사무실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포스 따위는 전혀 없었지만 ^^ 알차게 차곡차곡 진보의 씨알들을 일구어나가는 소박한 진지함이 느껴지는 사무실이었어요. 그리고 신변 보호를 위해 신원을 밝힐 수 없는 한 활동가가 말하길 '진보넷 분위기는, 가봤더니 각자 자기 일만 하더라'이라 하길래 쪼끔 걱정하고 갔는데, 제 우려를 날려버린 환대와 따뜻한 관심 덕분에 그 활동가를 앞으로 신뢰하지 말까 생각중입니다.^^

### 진보넷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무지개색이요. 다양한 진보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서^^ 하지만 무지개의 바탕에는 자기 색깔이 있어야 하고, 지금 진보넷은 그 색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 진보넷 활동 중에 특히 어떤 활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사회운동에 막 관심가지기 시작한 한 후배가 무엇부터 해야 하고 무얼 알아가야 하나고 물어보길래 저는 진보넷에 자주 들어가 보라고 했어요. 사이버 공간에서 진보의 허브로서 계속 역할해오는 모습이 보기 좋고 그중에서 메인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사회단체 알림판' 등등 '진보공동체'를 즐겨찾기하고 있어요. 아..이건 진보넷의 활동은 아닌가?ㅋ

### 회원님의 취미나 관심사는?

지도 보기가 취미입니다.ㅋ 지도를 보면 설레어요. 특히 요즘은 위성지도로 한국 및 세계의 곳곳을 보는게 재미있어요.

### 2010년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진보넷을 만난거?라고 하면 거짓말 같을까?ㅋ 인권영화제 준비한거요.^^ 저는 홍보팀을 맡았는데, 몰라서 못 갔다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도 꼭 알려나가고 싶네요.

### 2011년에 이루어 졌으면 하는 일이 있다면?

노동해방

진보넷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 해나갔으면 좋겠는지? 진보넷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진보넷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구...메인화면은 괜찮은데, '진보공동체' 디자인을 이쁘게 꾸며주세요.^^

자유롭게 한 마디 해주세요~

글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죠?ㅋㅋ 우리들의 활동들은 이 글처럼 용두사미하지 말자구요~~ㅎㅎ

## 후원회원이 되신 진보블로거 에밀리오님!

이번 달 회원인터뷰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진보블로거 (<http://blog.jinbo.net/noorz>)이다가 드디어 진보넷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준 에밀리오님입니다. 몇 년 전 진보넷 후원의 밤에 와서 자기가 천재+고등학생+문인이라고 3단 뺑을 쳤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누구나 바쁜 관계로 이메일로 진행된, 엉뚱한 에밀리오님과의 일문일답!!



에밀리오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소설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는 휴학 중이고, 사무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모 활동가께서 저보고 “정규직이죠?”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신데, 저 비정규직입니다. (π\_π)

**왜 이제야 진보넷 회원으로 가입하셨나요?**

그동안 돈 십 원 못 버는 학생이었습니다. (π\_π) 본격적으로 “노동자 라이프(!)”를 시작한 이후에, 여기저기 마음 가는 곳에 후원하다가 진보넷도 후원해야지! 하고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심플하군요;) 어쩌다보니, 회사 일이 바빠져서 학업을 잠시 쉬고 있거든요. (응? 주객전도?) 그래서 학비를 안 쓰게 되다보니, 회사가 바빠서 마음 가도 못 가니까, 작은 돈이라도……. (^^;)

**블로그에 포스팅한 진보넷 활동 내역 및 포스팅 좌표는?**

딱히 분류는 안 해놔서 잘 모르겠어요. 블로그는 고민 이야기와 배우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니, 딱히 관리를 잘 하고 있지는 않아서요. 포스팅은 여러 가지 했던 것 같습니다. 살면서 고민되는 문제들 위주로 쓴 것 같은데 학부생일 때는 학생운동이나, 학생회, 학생자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썼고, 대추리, 용산참사,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이야기도 썼던 것 같아요. 정보인권에 그저 관심만

많아서 그런 이야기도 썼던 것 같고, 여성주의도 배우고 싶어서 간간히 썼네요? (이게 대답이 적절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스팅 좌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ㅠ\_ㅠ)

**대체 왜 선물로 진보넷 투쟁 달력 나간 이후에 회원가입 했나요?**

몰랐어요, 물려주세요. (응?)

**진보넷 투쟁 달력을 여러 개 구입했는데, 누구에게 줬나요? 왜 줬나요?**

진보넷 투쟁 달력은 2년 째 친동생에게 신년선물로 줬습니다! 왜 줬냐면,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 밖에 없으니까……. (응?)

**소설가 지망생으로 보였는데, 지금도 글 쓰시나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신춘문예도 내고 하는데, 늘 떨어집니다. (^^);

**어떤 글 쓰세요? 블로그에 발표할 계획은?**

공개를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예전에 동화 써 놓은 거 발표해도 상관없겠지만, 실력이 탄로날 테니까요. 어떤 글이냐면요, 재미들이 낫들고 봉기(蜂起) 일으키는 그런 동화 씁니다. (응?)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다들어서 다시 한 번 글 올려보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응?)

**최근에 읽은 책이나 본 영화 등 다른 회원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최근에 본 책 중에는 『야성의 사랑학』정도? 기억에 확 남는군요. 이래저래 올림 주는 책은 많은 거 같긴 한데. 애타 여성주의 공부 할 만한 책 있으면 저한테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_+(그런 책도 추천 좀 ^^; 공부가 부족해요~) 최근에 본 영화는, 「부당거래」였는데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살짝 작위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보고 나니까 불편해지기도 하고 아무튼 재밌더군요. (「부당거래」의 결론은 “그래서, 검사해야한다!” 인 듯? 응?)

**최근에 겪은 인상 깊은 일은? 해결은 잘 됐나요? 덜덜**

모 정당에 당원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특정 문제로 제 나름대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온도차가 있었던 건지 뭐 하여튼 건전한 논의는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러다보니 ‘괴물’이 된 측면도 있는 거 같아요. 괴물 이야기는 포스팅 해야지, 했는데 아직 못

했네요. (얼추 썼던가;;)

**진보넷 활동 중 특히 관심 있으며, 또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정보인권문제에 관심 있습니다+\_+ 같이 하고 싶으나, 어쩌다 보니 회사가 바쁘네요. π\_π

**진보넷에 바라는 점은?**

진보넷 뭐 잘 하시고 계시는데요 뭘, 늘 지지합니다. (블로거라서 하는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이모티콘 중에 >\_< 안 써지던 게 혹시 수정이 됐으려나요? (^\_^;) 습관처럼 쓰던 이모티콘이었는데, 블로그에 안 써지는 바람에 다른 이모티콘으로 바꿔버렸어요(쿨럭)

**진보넷이 회원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면 좋을까요?**

잘 하고 계시는거 아니었어요? (@\_@;;) 힘내세요! 투쟁입니다 >\_<

## 진보넷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이동영님!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시작부터 지금까지 쪽~ 진보넷과 함께 하신 이동영님입니다. 2011년부터는 진보넷 운영위원이 되셨답니다! 앞으로 진보넷 운영위원으로 활약하실 이동영님의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이동영 운영위원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학생이다가, 지금은 회사원입니다. 한 개구장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구요.

**2002년부터 진보넷 회원이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진보넷과 인연을 맺었나요?**

사실 진보넷을 만들 때부터 참여했습니다. 진보넷이 만들어지기 전에 통신연대 활동을 해서 진보넷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진보넷이 시작되어서 2000년 유학가기 전까지는 자원활동도 했구요. 유학 중에는 네트워크에 기사를 연재하기도 했습니다.

**2011년부터 진보넷 운영위원이 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해주세요.**

위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진보넷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참여했고,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유학을 가고, 돌아와서 취직을 하면서 많이 소홀해졌는데, 이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진보넷 활동 중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후원의 밤 행사구요. ^^ 소위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허위의 통신" 위험 결정을 얻어낸 것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 이동영 운영위원님이 최근 관심 가지고 지켜보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최근 이슈라기보다는 좀 더 큰 트렌드에 대한 것인데요. 인터넷이 이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스마트폰은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속성상 PC보다 개인정보와 훨씬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이 큼니다. 지난 총회 뒤플이에서 김도형 변호사께서 언급하신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 시대에도 정보인권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이겠지만, 새로운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만큼 각론에 있어서는 새로운 분석과 이슈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특별히 취미 활동 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상이 바쁘다보니 특별한 취미 활동은 없네요. 시간이 있으면 웹서핑을 하면서 뉴스나 블로그 등을 살펴보는 편이구요.

### 진보넷 회원님들께 소개하고 싶은 최근에 보았던 영화나 책 등이 있으시다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으로 양상한 생활이다보니... 가장 최근에 본 영화는 <메가마인드>인데,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 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얼마 전에 비행기에서 "Peepli Live"라는 인도 영화를 보았는데, 인도의 농민 자살 문제를 다룬 코메디 영화입니다. 영화 자체는 코메디이긴 한데 (코메디이면서도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조금 진지하고 우울한 분위기도 섞인 색다른 느낌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인도 농민 자살 문제는 실제로 심각한 문제였던군요.

### 2011년 진보넷에 바라는 점이나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스마트폰, 소셜 네트워킹, 매시업 등 새로운 추세에 대응해 새로운 활동 내용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이 지나가고 곧 3월이 오는데요. 이동영 운영위원님에게 2011년 2월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정신없이 지나가서 언제 다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가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유롭게 한 마디 해주셔요^^

모두들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A man with dark hair, wearing a brown jacket, is smiling and looking towards the camera. He is standing outdoors in a snowy environment. In the background, there is a modern building with large windows and a balcony. A large, snow-covered evergreen tree is visible to the right of the man. The overall scene suggests a winter setting, possibly at a university or office building.

**Section 111. 센터 속사정**

## 이종회 대표, 집행유예 선고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던 진보넷 이종회 대표는 지난 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항변 요지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의 집행은 유예되었다고 하네요. 이종회 대표를 감옥에 보내지 않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제 마음놓고 엠티를 같이 갈 수 있겠군요! 하지만 이 판결에 좋아해야 할지..ㅠㅠ 우리 대표는 무죄라고요!

## 2011년 진보넷 총회 개최

지난 2월 15일 2011년 진보넷 총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운영위원으로 김지성님, 이동영님, 이정훈님께서 임명되었고, 기존에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되던 것이 개인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는 정관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총회부터는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었는데요. 총 아홉 분이 온라인으로 의결에 참여해주셨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center.jinbo.net/emeeting2011>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